

# 출판N

2021.05 Vol.21

Now  
Next  
News  
Network

책문화의 현재와 미래를 그리는  
매체로 다양한 목소리와 연대,  
연결을 지향하는 출판 전문 매거진

[nzine.kpipa.or.kr](http://nzine.kpipa.or.kr)

## 커버스토리 : 사람과 책을 연결하는 사람들

서점에서 뉴스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의 일상  
Browser, Marketer, Reader  
어떤 책을 소개해야 어디 가서 잘 소개했다는  
말을 들을까...  
책, 사람, 도서관 그리고 사서  
북튜버, 축의 전환

## 정책중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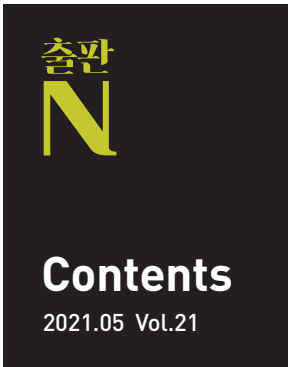
[KPIPA 출판산업 동향] 2020년 하반기 KPIPA  
발행 통계 및 심층분석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출판 프리랜서 지원사항  
점검

## 출판가 핫&쿨

주식투자서 열풍의 원인과 전망  
[편집자 이야기] 편집자의 일에 대한 어떤 루머와  
고민

## 인사이드

[저작물 수출 조건과 실상 ③] 한국어 저작물  
수출의 미래를 위하여  
[인터뷰] 서평 문화가 지니는 진정한 의미,  
서울리뷰오브박스  
정수초 한옥도서관과 한옥교실을 가다



<출판N> 웹진  
<http://nzine.kpipa.or.kr>



<b>+ 커버스토리</b>	<b>사람과 책을 연결하는 사람들</b>	
	서점에서 뉴스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의 일상 Browser, Marketer, Reader	01
	· 박수진(교보문고 북뉴스 에디터)	
	어떤 책을 소개해야 어디 가서 잘 소개했다는 말을 들을까...	05
	· 이혜인(경향신문 문화부 출판 담당 기자)	
	책, 사람, 도서관 그리고 사서	11
	· 송재술(서대문구립도서관 관장)	
	북튜버, 축의 전환	17
	· 공백(북 크리에이터)	
<hr/>		
<b>+ 정책zoom인</b>	[KPIPA 출판산업 동향] 2020년 하반기 KPIPA 발행 통계 및 심층분석	22
	· 정책연구통계센터, 백원근(책과사회연구소 대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출판 프리랜서 지원사항 점검	30
	· 김세나(퍼블리셔 운영자)	
<hr/>		
<b>+ 출판가 핫&amp;쿨</b>	주식투자서 열풍의 원인과 전망	36
	· 강현정(에스24 경제경영 MD)	
	[편집자 이야기] 편집자의 일에 대한 어떤 루머와 고민	42
	· 이연실(문학동네 편집부 국내5팀장)	
<hr/>		
<b>+ 인사이드</b>	[저작물 수출 조건과 실상 ③] 한국어 저작물 수출의 미래를 위하여	47
	· 신서희(임프리마 코리아 에이전시 과장)	
	[인터뷰] 서평 문화가 지니는 진정한 의미, 서울리뷰오브북스	51
	· 홍성욱(<서울리뷰오브북스> 편집장)	
	정수초 한옥도서관과 한옥교실을 가다	57
	· 정선영(정수초등학교 교무부장)	

발행인 김수영 편집인 김영진 편집위원 김흥기, 류영호, 백창민, 이영미 발행일 2021년 5월 13일

발행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소 5486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63 대표전화 063-219-2700 E-mail [nzine@kpipa.or.kr](mailto:nzine@kpipa.or.kr) 홈페이지 [www.kpipa.or.kr](http://www.kpipa.or.kr)

기획/편집 정책연구통계센터 디자인/제작 (주)늘품플러스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지에 실린 글과 이미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필자의 동의 없이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 책을 연결하는 사람들]  
서점에서 뉴스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의 일상  
Browser, Marketer, Reader

---

박수진(교보문고 북뉴스 에디터)

2021. 5.

## Browser

서점에서 뉴스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한 이후 단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지금까지 하는 일이 있다. 일주일에 한 번, 그 주에 출간된 신간 리스트 전체를 훑어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목록을 쭉 읽어본다. 요즘은 많이 안 쓰는 단어인 것 같은데 브라우징(Browsing), 그러니까 이렇게 훑어보는 일이 별거 아닌 듯하지만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내가 하는 일의 가장 큰 밑천이기 때문이다.

매일 출간되는 수많은 책 중에서 좋은 책을 골라 소개하고 추천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출판계의 중요한 일이었다. 최근에는 AI 추천과 큐레이션, 구독서비스가 관심 대상이다. 빅데이터를 이용하고 알고리즘을 정교화해 독자 개개인에게 맞춤형 추천을 제공하는 것과 큐레이터의 개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콘텐츠로 독자의 취향을 저격하는 것은 방법은 다르지만 방향은 같다. 서점에서 만드는 뉴스 콘텐츠도 결국 '좋은' 책의 '추천'이 목적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추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요즘 고민이 많다. 서점 직원으로서 책을 추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시도 아니고, 내 취향을 앞세울 만큼의 셀럽도 아니며, 권위를 가진 전문가도 아닌데 말이다.

그래서 찾은, 서점에서 뉴스 콘텐츠 만드는 사람으로서 내 일의 기본은 독자를 대신해서 어떤 책들이 출간되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다. 이 책이 어떤 독자에게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 가능해보고, 독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독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모두 '훑어보기'를 기본으로 한다.

그 주의 신간 리스트를 읽어 내려가며 책의 제목과 저자 이름, 책 표지를 머릿속에 최대한 넣어본다. 그러면서 중요해 보이는 책들을 체크하고, 어떤 책인지 전혀 감도 안 오는 책들도 따로 체크해둔다. 그

주의 북섹션 리뷰 도서, 분야 MD들이 올린 '오늘의 책' 추천 리스트, 출판사 마케터들이 미리 귀땀해 준 주력 홍보 도서들에 대한 정보들도 더해본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겨우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셈이다.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다른 사람들이 추천한 책들만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도 충분하다. 하지만 나는 이 단계를 빠트리면 찝찝하다. 내가 어떤 기준과 어떤 이유로 이 책을 선택하였는지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면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 Marketer

신간 전체를 살펴보는 무식하게 많은 인풋에 비해 아웃풋인 뉴스 콘텐츠는 숫자가 적은 편이다(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은 하루 여덟 시간인데다, 뇌세포는 금방 피로해져서 여덟 시간 내내 풀가동할 수도 없다). 제작할 수 있는 콘텐츠의 숫자가 정해져 있기에 콘텐츠로 풀어낼 책을 고를 때도 신중하게 된다. 그리고 선택의 기준점이 되는 것은, 별로 낭만적으로 들리진 않겠지만 내가 서점 직원, 그러니까 책을 파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서점에서 만드는 뉴스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마케팅 활동의 일환이다. 도서 판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목표로 만든다는 뜻이다. "콘텐츠만으로 화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면 좋겠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직장인으로서, 그 야망은 언젠가 꺼내보기로 하고 우선은 마음속에 간직해본다.

'일'로서의 콘텐츠 제작은 다른 여러 도서 마케팅 활동들과 연계되어서 기획되고 릴리즈된다. 예전에는 신간 홍보와 마케팅 방식이 책마다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신간이 출간되면 출간 초기에 언론사 북섹션에 리뷰나 저자 인터뷰가 실리고, 저자 사인회가 기획되었다. 콘텐츠 제작도 그런 마케팅 일정을 따라 출간 초기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았고 콘텐츠 형식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주목할 만한 신간을 소개하고, 신간을 출간한 저자와 인터뷰를 하고, 이슈에 대해서 기획 기사를 쓰는 형태로 말이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형태의 콘텐츠로 제작할 것인가부터 질문을 시작해야 한다. 각각의 책마다 홍보에 적합한 채널이 다르기 때문이다. '유튜버로 유명한 저자인데 의외로 영상 인터뷰 조회 수가 높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같은 콘텐츠인데 왜 트위터에서는 흥하고 인스타그램에서는 반응이 안 올까?', '긴 지면에 실린 인터뷰를 SNS용 카드 뉴스로 가공하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살려야 할까?'. '이 책이 필요한 독자에게 닿으려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건네어야 하는 걸까?'와 같은 고민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지 않았던 것들이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고민이 되었지만 말이다.

## Reader

이렇게 써놓고 보니 콘텐츠 제작이 너무 건조한 '일'의 영역인 것만 같지만 나름의 로망도 있고 설레는 부분도 있다. 서점 '관계자'로서 하는 일 외에도, 책과 독서를 놓을 수 없는 '찐' 독자로서 하고 싶은 일, 또는 할 수 있는 일도 많기 때문이다.

아까 잠시 마음속에 넣어두었던 야망을 꺼낼 때이다. 재미도 있고 가치도 있고 심지어 내 취향인, 그래서 더 많은 독자에게 알리고 싶은 책인데 마케팅과 홍보가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다. 그런 책을 발굴

해서 콘텐츠를 통해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반응(=도서 판매)을 이끌어내는 일은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일일 것이다. '내가 만든 콘텐츠로 이 책을 역주행시키겠다!'라는 야심 말이다. 물론 나는 아직 실현해 본 적 없는 '로망'의 영역이라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런데 늘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있다. 자칫하면 '나'의 취향에 매몰되어서 '나'를 위한 콘텐츠를 만들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내 취향의 책을 만나면 오히려 더 따지고 들게 된다. '이 책을 원하는 독자가 몇 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 '이 책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데?', '그 메시지가 다른 사람에게도 정말 중요한 거야?' 등과 같은 질문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 모든 의심을 거친 후에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책이 있다면, 그때는 폭주(?)해도 괜찮다. 히가시노 게이코의 전작을 소개했던 기획, 온갖 버전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모았던 기획 등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찐 광기'였지만 지금 봐도 괜찮은 콘텐츠라고 생각한다. 덕업일치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과물이랄까.

## 나의 독서 나침반

독자들이 책을 고를 때 내가 만든 콘텐츠를 참고하고 신뢰한다면 참 보람을 느낄 것 같다. 하지만 더 이상적인 것은 독자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책을 탐색하고 발견하는 것이다.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직접 고를 수 있는 독자에게 필요한 콘텐츠라면, 그것은 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만을 담은 목록 형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목록 형태의 책을 좋아한다. 하나의 주제와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담은 사전 형식의 책도 좋아한다. 그런 책들은 읽어갈수록 조금씩 지식이 쌓여가고, 한 권을 다 읽으면 머릿속에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구조화된다. 마냥 신나게 책장을 넘길 수 있는 책은 아니지만, 야금야금 읽는 맛이 매력적이고 다 읽고 나면 포만감과 만족감이 느껴지는 장르이다.

최근에 읽고 감탄한 책이 있는데, 독보적인 아티스트 데이비드 보위의 모든 순간을 기록한 『더 컴플리트 데이비드 보위』다. 948쪽이라는 어마어마한 분량도 분량이지만 데이비드 보위의 모든 곡을 A-Z 순으로 배열해 정리한 것이 압권이었다. 연대기순도 아니고, 주제별도 아니고, 앨범별도 아니고, 노래를 A-Z 순으로 정리하다니, 어디서도 보지 못한 신박한 정리법이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정리했을 때 더 선명해지는 것이 분명히 있었다. 같은 정보라도 어떤 방식으로 조직하고 배열하고 제시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였다. 물론 가장 존경스러운 점은, 데이비드 보위의 커리어와 삶 전반에 대한 자료를 오랜 시간에 걸쳐 살살이 찾아내 거의 1,000쪽에 달하는 대작으로 만들어낸 것이지만 말이다.

-

일주일에 한 번씩 신간 리스트를 뽑아서 읽어보는 일과 함께하는 또 다른 정기적인 의례가 있다. 책상에 쌓인 신간 도서들을 한 번씩 들춰보는 일이다. 매주 출판사에서 다양한 책들을 보내온다. 그 책들을

모두 다 소개할 수는 없다. 다 읽어볼 수도 없다. 하지만 적어도 책 표지를 열어 조금이라도 읽어보려고 노력한다. 그 책을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은 사람이 애썼다는 것을 알고 있고, 어떻게든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서점 뉴스 콘텐츠 담당자에게 책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출판사에서 보내온 책들을 읽을 때면, 출판계 관계자가 아니라 그저 한 명의 독자가 된다.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이 보낸 책은 적어도 한 명의 독자가 읽었습니다. 소개하지 못한 책들도 소중한 마음으로 읽어봅니다. 잘 기억해두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소환해낼게요.

---

**박수진(교보문고 북뉴스 에디터)**

교보문고에서 뉴스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 웹진에 기획 기사와 저자 인터뷰를 게재하던 일이 이제는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 기획과 SNS용 콘텐츠 제작까지 확장되었다. 그 변화를 경험하면서 책과 콘텐츠와 미디어에 대해서 계속 고민 중이다.

[사람과 책을 연결하는 사람들]  
**어떤 책을 소개해야  
어디 가서 잘 소개했다는 말을 들을까...**  
- 출판 담당 기자의 일상

---

이혜인(경향신문 문화부 출판 담당 기자)

2021. 5.

책을 좋아한다. ‘활자중독’, ‘독서광’, ‘취미는 독서’ 같은 확고한 수식어를 차마 스스로에게 사용하지는 못하겠으나, 책을 좋아한다는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타고난 범생이 인생에서 책은 ‘나라에서 허락한 유일한 일탈’이었으니까. 학창 시절 마음이 헛헛하면 도서관에 갔고,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은 오 프라인 서점에 간다. ‘유·무료 독서모임 경험 다수’인 독서인구다.

책 안에 담긴 활자보다는 책의 물성 자체를 좋아한다. 그 어떤 신문 헤드라인보다도 강렬하게 눈길을 사로잡는 제목, 손에 쥐는 순간 이미 그 분야 지식인이 된 것처럼 만들어주는 지적 중량감, 각 책의 특성에 맞게끔 잘 골라진 종이 질, 작가의 개성이 담겨 있는 다양한 문체...

그러니까 내가 신문사에 입사하고 몇 년이 흘러 출판 담당 기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때부터 그 자리를 아주 조금씩 욕심내 온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뭐? 하는 일이 하루 종일 책을 만지는 건데, 그중에서 제일 좋은 책이 뭔지 고른 다음에, 그 책을 업무의 일환으로 읽고, 그걸로 기사를 쓴단 말이야?!’ 회사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 즐겁기만 할 리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출판 담당 기자는 언젠가 한 번은 꼭 해보고 싶었던 ‘꿈의 자리’였다.

얼마 전 부서 내 업무 조정으로 경향신문의 출판·학술 담당 기자가 됐다. 세 달째에 접어드는 지금, 출판 담당 기자의 일상은 기대만큼 즐겁고,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힘들다. 이제 막 적응기를 마친 출판 기자의 일상을 정리했다.

## 출판 기자는 이런 일을 합니다

일간지 '출판 기자' 혹은 '책 담당 기자'는 어떤 일들을 할까. 언론사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은 있겠지만 가장 주요한 업무는 역시 신간 소개다. 경향신문은 매주 토요일 자 신문에 세 개 면을 할애해 책 면(Book)을 만든다. 출판 담당 기자는 신문사로 배송되는 모든 책을 검토해 책 면의 밑그림을 짜고, 필자를 배분하고, 책 1면의 메인 자리에 들어가는 프런트 기사를 쓴다. 소설·시·그림책·문학 작가가 쓴 에세이류는 문학 담당 기자가, 비문학으로 분류되는 나머지 책 전부는 출판 담당 기자가 맡는다. 한 주에 100~200권가량 들어오는 책을 꼼꼼히 검토해 책 면을 짜야 한다.

책 소개 기사는 꼭 책 면에만 실리는 것이 아니다. 문화면에 실리는 출판계 트렌드 기사로도 신간을 소개한다. '대선 시계 빨라지자 정치인 자서전도 많아져', '20대 남성들에게 다시 부는 자기계발서 열풍', '주목할 만한 쿼어에세이 \*권' 등이 요즘 눈에 띄는 책 트렌드 기사였다. 서평이 아닌 저자 인터뷰 형태로도 신간을 소개한다. 저자의 설명이 곁들여지면 더 좋은 책일 것 같거나, 저자가 왜 이런 책을 썼는지 주목해볼 만하거나, 책 면에 자리가 부족한 관계로 미처 실리지 못해 인터뷰 기사로 돌려야 하는 경우 저자 인터뷰로 책 소개 기사를 쓴다.

다음으로 주요한 업무는 출판계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기사로 소화하는 것이다. 도서정가제 논란, 송인서적 공동 인수 등 출판계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진다. 최근(4월 말 시점)에는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가 출간됐는데,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가 판명 되기 전에 대형서점에서 고객 보호 차 선제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는 것이 뉴스가 됐다. 출판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의외로 독자들의 관심이 높다.

각 학계에서 나오는 주장이나 논쟁들을 다룬 기사를 쓰는 것도 주요 업무 중 하나다. 경향신문은 출판 담당 기자가 학술도 함께 담당하기 때문에 출판계와 학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두 챙긴다. 페미니즘, '위안부' 이슈, 역사 왜곡 논란 등은 출판 및 학술 담당 기자가 주로 다루는 주제다.



출판 담당 자리에는 언제나 책이 이렇게 쌓여 있다.



## ‘좋은 책’은 어떻게 고르나

출판 담당 기사를 하기 전에는 이렇게 많은 책이 세상에 나오는지 잘 몰랐다. 매체에서 소개할 법하다고 판단하는 것들만 출판사에서 신문사로 보내는 것 같은데도 한 주에 받게 되는 책의 양이 꽤 많다. 비성수기 시즌인 여름철을 제외하면 대략 100~200권의 책이 매주 온다. 문학 담당이 아닌 출판·학술 담당 기자에게 오는 책의 양만 이렇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두툼한 소포 용지에 포장된 책들이 책상 옆에 쌓여 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책 봉투를 뜯어서 일렬로 가지런히 쌓아 둔다. 처음 2주 정도는 맨손으로 뜯다가 손을 많이 베었다. 지금은 다이소에서 얇은 작업용 장갑을 사 와서 꼭 그걸 끼고 책 포장을 뜯는다. 포장지를 벗은 매끈한 책이 쌓일 때마다 이걸 다 언제 분류하나 싶어 압박감도 조금씩 쌓인다.

다 뜯으면 이제 분류 시작이다. 책 1면 프론트 자리에 원고지 20매 분량으로 소개하는 메인 기사 후보군 4~5권과 박스 기사로 소개할 책들(4~5권)의 후보군 10여 권을 추려야 한다. 거대한 책 탑의 높이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빠르게 초벌 분류를 시작한다. 재출간, 개정 증보판은 곧장 옆으로 내놓는다. 재출간·개정 증보판은 특별한 사건이 있거나 책의 많은 부분이 새로 쓰인 경우에만 신간으로 소개한다. 이미 세상에 나와 독자를 한 번 만날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새로 만든 기준은 아니고 대대로 내려오는 기준이다. 신문에 쓸 책, 안 쓸 책을 쉽게 후다닥 분류할 수 있는 것은 딱 여기까지다.



최근에 경향신문 책 면 프론트 기사로 소개한 책들. 언젠가 다시 볼 일이 있을지도 몰라서 책장에 따로 모아 보관해둔다.

그다음부터는 여러 개의 기준을 머릿속에서 꼬집어내 펼쳐 놓고 책을 살핀다. 전임자에게, 부장에게, 동료 기자들에게 어떤 기준으로 책을 선정해야 하는지 묻고, 나의 가치관을 더해 몇 개의 기준을 만들었다. 최대한 공정하고 품위 있고 독자 친화적인 기준을 만들려고 노력했으나, 사실 매우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책을 고를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내가 책 면을 맡고 한두 주쯤 지나자 주변 동료 몇몇이

“사람 한 명 바뀌었다고 책 면 구성이 바뀐 게 느껴지다니, 신기하네요”라고 말했다.

내가 책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깊이’와 ‘시의성’이다. 책을 손에 들고서 독자에게 지적인 깨달음이나 유희를 줄 만큼 깊이가 있는 책인지 생각해본다. 책의 난이도와 깊이는 별개다. 예를 들어 지난달 책 면에 소개됐던 원더박스 출판사의 『내 친구 압둘와합을 소개합니다』라는 책은 중학교 국어 교사가 한국에 사는 한 시리아 청년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인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쉽게 쓰여졌다. 난민, 이방인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읽어볼 만한 좋은 책이라고 생각했다.

저명한 저자나 해외 베스트셀러 여부는 고려할 수밖에 없는 책 선정 기준이다. 해외에서 화제가 되면 국내에서도 출간을 기다리는 독자들이 많다. ‘뉴욕타임즈 올해의 책 선정’ 등의 설명이 있는 책은 해외에서 실제로 얼마나 화제가 됐었는지 검색해본다. 아마존 사이트에 들어가서 평점을 얼마나 많이, 높게 받았는지 확인하고 해외 우수 언론들의 서평도 찾아본다. 해외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적어도 이 책이 별로는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맨 마지막 점검 기준은 ‘나의 책 취향이 너무 강하게 반영되지 않았는가’이다. 고백하자면 나는 과학책을 압도적으로 편애하고, 경제학책을 선호하며, 역사책에는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과학 및 경제 분야 책에는 더 간간해지려고 하고, 역사와 철학책에는 관대해지려고 한다.

치열한 나와의 토론을 거쳐 고른 책들은 책 회의에 올려진다. 경향신문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쯤 문화부원 전원이 모여 책 지면에 들어갈 책을 결정한다. 선정한 책 목록과 간단한 개요, 선정 이유를 담은 짧은 발제문을 프린트해서 부원들과 공유한다. 치열한 토론과 설전까지는 아니지만 날 선 질문과 의견 교환이 오고 간다.

그간 문화부를 여러 차례 경험했기에 출판 담당이 아닐 때도 책 회의에 참석해 왔다. 그 시기 구성원들의 성향에 따라 책 회의 분위기와 선정 도서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현재의 경향신문 문화부 책 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균형’이다. 이왕이면 한 면에 각기 다른 주제와 분야의 책이 소개되는 것이 좋다고 여긴다. 지난주에 프린트로 과학책을 선정했다면, 이번 주에는 웬만하면 과학책이 아닌 다른 분야의 책을 선정하려 하는 식이다. 한 출판사의 책이 여러 권 소개되는 것도 지양한다. 해외와 국내 저자의 책 비율도 적절히 안배하려 한다. 한 시간가량의 책 회의를 통해 책 면이 확정된다.

## 이제 남은 것은 마감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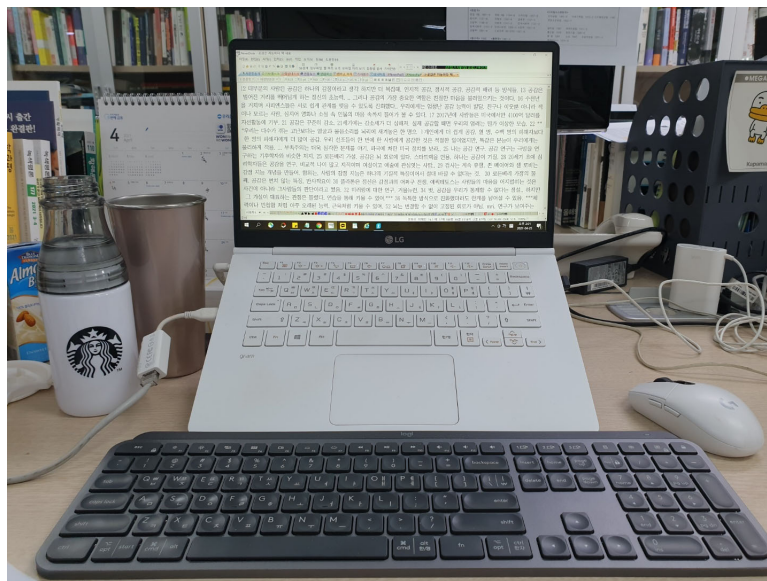
책 분류보다 더 압박스러운 것은 원고지 20매짜리 프린트 기사 마감이다. 토요일 자 지면이지만 사전 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요일 하루 동안 책 한 권을 읽고 목요일 오후 2시쯤까지는 마감을 해야 한다(하지만 보통 3~4시 사이에 넘긴다). 아침부터 책을 붙잡고 앉긴 하는데 다른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결국 수요일 늦은 오후가 돼서야 책을 제대로 읽기 시작한다.

나에게 얼마 있지 않은 성실함은 이상하게도 책을 읽을 때 발현된다. 프린트 감으로 선정되는 책은 아무래도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밖에 없다. 기본이 400쪽 분량, 600~700쪽 분량의 책도 종종 선정된

다. 부원들이 “이 책은 어쩔 수 없이 발췌독 해야겠네”라고 말하더라도, 그것은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다. 이걸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발췌독을 하면 자신감이 떨어져서 도저히 개요를 세울 수가 없다. 눈에 띄는 문장에 밑줄을 쳐가면서 정성대로 완독 한 번, 개요를 세울 때 밑줄 쳐놓은 부분을 다시 읽는 탐독 한 번을 거치고서야 서평을 쓴다.

얼마 전 열린책들에서 나온 총 744쪽짜리 『세계를 창조하는 뇌 뇌를 창조하는 세계』가 프린트로 선정됐을 때는 슬플 지경이었다. ‘이걸 언제 다 읽지...’ 집에 가서 긴장된 마음으로 책을 펼치고 읽다 보니 의외로 술술 읽혔다. 예시도 많은 데다가, 자간도 넓고, 심지어 뒷부분 100쪽 정도는 각주 모음! 고생해서 읽은 책은 그만큼 기억도 오래가서 읽는 보람이 있다.

하루 반나절 되는 시간 동안 한 권의 책을 정독하고 20매의 글을 쓰는 것은 정말이지 너무나 고통스럽고 압박스럽지만 동시에 매우 소중한 보람찬 경험이다. 이번 주는 조세 불평등 이야기에 빠져들었다가, 다음 주에는 뇌과학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 주에는 사이버전에 대해서 전문가인 척 글을 쓰는 것을 살면서 언제 또 경험해보겠는가. 기껏해야 486 정도의 CPU를 가진 나의 뇌에 강제로 책이라는 SSD칩을 장착해 매주 용량을 넓히는 느낌이다. 20매를 마감하고 탈진 상태가 된 목요일 저녁, 집에 돌아가서는 보상심리에 힘입어 ‘귀신이 고칼로리’인 음식을 밀어 넣는다.



책 면 기사 마감에 있는 날엔 회사에 좀 더 일찍 나와 자리에서 마감을 한다. 집에 있으면 집중이 안 돼 마감을 더 늦게 하게 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진정한 마감은 다른 신문이 책 면에 어떤 책들을 선정했는가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대부분의 신문사는 금요일 자 신문에 책 면을 두고 있다. 금요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집어 들고 다른 신문의 책 면을 허겁지겁 체크한다. 내가 선택한 책들을 대부분 크게 썼다면 ‘역시 다들 좋은 책은 알아보는구나’ 하면서 안도한다. 다른 곳은 안 썼는데 나만 유달리 힘을 주어 쓴 책이 있다면 ‘나의 안목이 특별하군’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내가 너무 내 취향만 생각한 것은 아

닌가'라며 조금 위축되기도 한다.

아마 출판 담당 기자를 그만두는 날까지 '이 책은 반드시 소개해야만 한다'는 정답을 알게 되는 날은 오지 않을 것 같다. 그저 좋은 책을 소개하고자 하는 마음만 지금처럼 잘 유지하면서 고민과 좌절과 보람 사이를 오고 가는 수밖에 없다. 책 무더기 속에서 행복한 허우적거림을 반복하면서.

---

**이혜인(경향신문 문화부 출판 담당 기자)**

경향신문 기자. 2011년 기자 일을 시작해 사건·사고, 금융, 보건복지, 영화 등의 분야를 맡아 기사를 썼다. 지금은 문화부에서 출판, 학술, 종교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 [사람과 책을 연결하는 사람들] 책, 사람, 도서관 그리고 사서

송재술(서대문구립도서관 관장)

2021. 5.

### #책과 사서

세상에서 책과 사람을 연결하는 여러 직업 가운데 공공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는 그들만의 태생적 특징이 있다. 사서는 상업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에 속해 있다. 이용자에게 책을 많이 빌려준다고 월급을 더 받지 않는다. 책을 누군가에게 소개하거나 대외적으로 홍보한다고 해서 어떤 대가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마다 취향이나 세상을 보는 시각, 표현하는 방식이 천차만별인 세상에서 적어도 사서가 추천하는 책은 금전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사서 개인, 또는 그들 집단이 순수한 공익적 목적으로 선택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예고편을 보고 잔뜩 기대했다가 본편을 보고 실망하는 영화처럼, 과장된 미사여구와 자극적인 홍보문구에 혹했다가 실망할 일은 없다는 것이다.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사서의 책 소개는 보통 담백하면서도 객관적인 시각을 최대한 유지하고,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신중하게 도서에 접근하다 보니, 서평에서 느껴지는 재미나 통통 튀는 맛은 덜한 감이 있다.

책과 사람을 연결하기 위해 특정 도서나 주제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한 권 한 권이 모여 만들어진 장서의 전체 모습을 ‘안정적’이고 ‘균형 있게’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도 책을 다루는 다른 직업군과 차별화된 사서만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좋은 도서관은 단지 책의 수가 많은 도서관이나 몇 권의 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 아니다. 서가를 돌아볼 때 신간 도서가 적절히 비치되어 있고, 도서관 공간을 활용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로 추천 도서를 소개하거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으면 그래도 직원들이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다. 반면에 오래되어 시류에서 벗어난 책들이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주제 분류번호를 잘못 부여해서 엉뚱한 위치에 꽂혀 있는 책들이 눈에 자주 보인다면 그 도서관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떨어진다. 한정된 도서관 건물 안에서 모든 도서에 대한 요구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도 중요하다.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의 도서관은 통합데이터 검색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필요하면 강원도 산간 시골 도서관에서도 바다 건너 제주도에 있는 도서관의 책을 빌려볼 수 있다. 도서관 협력망은

사서가 가진 강력한 무기다. 그래서 도서관에서는 낱권의 도서를 표현하는 ‘책’이나 ‘도서’라는 용어보다 여러 책이 모여 군집을 이룬 ‘장서’라는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책을 구입한다’고 하지 않고 ‘장서를 개발한다’고 표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굳이 시작부터 장황하게 이런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20년 차 사서로서, 모든 분야의 책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현란한 말솜씨로 책을 추천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도, 이용자가 원하는 책이 있으면 어떤 책이든지 구해서 전달할 수 있는 재주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 #기억 속 도서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과거 1980년대, ‘국민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 기억하는 도서관은 책을 빌리러 가는 곳이 아니라 공부하기 위해 가는 곳이었다. 도서관 입구에서는 입장료를 받았고, 책을 읽고 싶어도 서가에서 마음대로 꺼내 볼 수 없었다. 1985년 7월 발행된 <오늘의 도서관> 잡지에 실린 기사는 당시 공공도서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 전략 - 도·시·군립의 공공도서관에서 다음과 같이 잘못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절대다수임을 안다면 누구나 크게 놀랄 것이다. ①개관 시간 중에도 서고에 자물쇠를 채워둔다. ②서가에 이용자가 접근할 수 없다. ③열람용 목록 카드가 없다. ④관외 대출을 하지 않는다. ⑤구입 도서의 선택이 제멋대로다. ⑥자료 가치가 없는 낡은 책으로 권수를 채운다. ⑦사서 자격자가 없다. ⑧잡지 구입은 아예 하지 않고 기업 광고책자로 메우고 있다. 이 내용은 필자가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방문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이다. - 후략 - ”

- 임대섭, <오늘의 도서관>(1985.7.1.) 1면 -

내 머릿속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도서관의 기억도 별반 다르지 않다. 1980년대 중반 당시 ‘국민학생’ 시절, 가끔 시험공부를 핑계로 몇몇 친구들과 인근 야산 위에 있던 도서관을 찾았다. 당시 그 도서관의 자료실은 반 개가식, 즉 이용자가 직접 읽고 싶은 책을 서가에서 선택할 수는 있으나, 도서관 직원에게 허락을 받은 후 자기 자리로 돌아가 책을 읽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주로 전집류 도서가 많았는데, 이 책 저 책 마음대로 꺼내 보았다가는 혼날 것만 같은 소심함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서 조심스럽게 꺼내 펼쳐봤던 기억이 난다. 무거운 공기가 짓누르는, 친구와 잡담은 고사하고 마른기침마저 조심스러운, 오로지 책장 넘기는 소리만 허용된 숨 막히는 공간이었다. 그래도 그런 도서관의 모습이 싫지는 않았다. 그때 도서관은 당연히 그런 공간이었다. 친구들과 매점에서 노닥거리다 집에 오는 날이 더 많아도 ‘왠지 오늘은 도서관에서 보람찬 시간을 보낸 것 같다’는 막연한 부듯함을 안겨주었다. 지금도 돈과 명예에 크게 집착하지 않는다면 내가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푸근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 #코로나19와 도서관

코로나19를 빼놓고 지금의 도서관 모습을 이야기하기 어렵다. 예년에 비해 평일 낮 시간 이진아기념도서관 종합자료실의 모습은 비교적 한산하다. 방역지침에 따라 인원을 제한하다 보니, 6인석 테이블에 한두 명만 앉을 수 있다. 그래도 책을 빌려 가는 이용자 수는 지난 1월 도서관이 재개관한 이후 꾸준히 늘어 예년 대비 90% 수준을 회복했다. 아침저녁으로 직원들이 조를 짜 방역을 하고, 매일매일 반납된 도서를 일일이 소독하는 일도 쉽지 않다. 간혹 마스크 착용이나 음식물 섭취 금지 같은 이용 지침을 따르지 않는 이용자와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지만 도서관 문을 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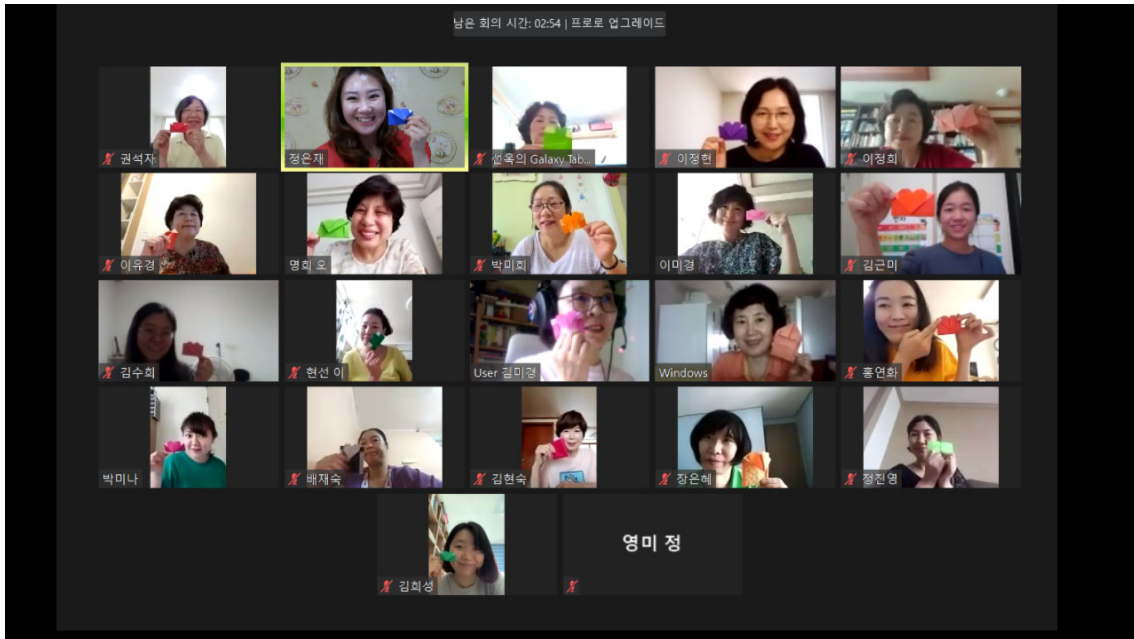


이진아기념도서관 종합자료실

지난해에는 일 년 내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도서관도 수시로 휴관과 재개관을 반복해야 했다. 도서관이 휴관 중일 때는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도서를 사전에 신청받아 준비해 두었다가 다음 날 도서관 출입구에서 전달해주는 예약 대출 서비스를 시행했다. 하루에 많게는 500권 이상을 빌려 갔는데, 신청 도서를 서가에서 찾아 순서대로 정리하고, 도서 관리 시스템에서 처리 내역을 등록하고, 반납 도서는 소독을 거쳐 제자리로 이동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도서관이 문을 열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분주하게 돌아갔다. 지난 추운 겨울, 책을 전달하기 위해 하루 종일 도서관 출입구 앞에서 찬바람을 온몸으로 견뎌내는 것도 곤혹이었다.

예약 대출 방식으로 책은 빌려준다 하더라도, 그 외에 도서관 공간에서 진행되는 독서 동아리 모임이나 각종 문화 강좌,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큰 과제였다. 처음 몇 달간은 ‘금방 끝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도서관도 ‘비대면 온라

인 서비스'라는 것을 시도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직원이나 이용자 모두 온라인 소통 방법이 익숙지 않기도 하고, 비대면 프로그램도 처음이다 보니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의외로 호응이 좋았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 분들의 참여가 걱정이었는데, 오히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즐거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바람에 도서관에 오기 어려웠던 한 이용자는 이제 언제든지 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며 독서 동아리 모임을 온라인으로 지속하길 바라기도 했다.



동화 서비스 붕붕이 프로그램

좀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조만간 예전의 활기찬 도서관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오늘도 우리 도서관 직원들은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사서에게 힘을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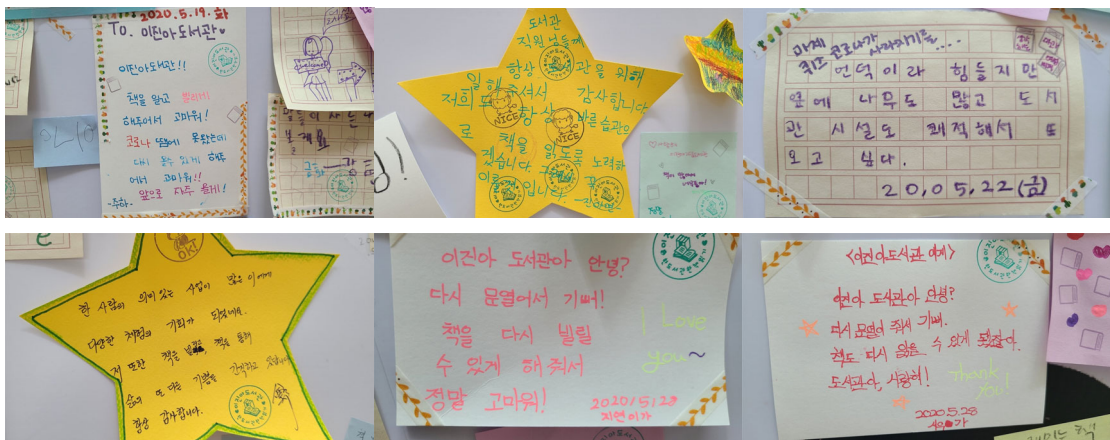
공공의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는 여러 시설 가운데 도서관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유용한 공간이 떠오르지 않는다.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이용할 수 있고,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단축 운영을 하고 있긴 하나 주말 휴일과 밤늦은 시간까지 문을 열며, 무료로 책을 빌릴 수 있고, 다양한 편의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평생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고, 동네 주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다. 문화시설이자, 교육시설이고 복지시설이기도 하다.



“- 전략 -‘도서관이 문을 여니 감개무량하다’면서 ‘도서관이 늘 곁에 있어 가치를 잘 못 느꼈는데 도서관의 가치를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후략-”

- <내일신문>(2020.5.18.) 기사 중

지난해 초 코로나19로 도서관이 갑작스럽게 장기 휴관에 들어갔다가 5월에 잠시 문을 열었을 때 우리 도서관 이용자가 한 신문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도서관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도서관 로비 한편에 마련한 “이진아기념도서관에 한마디” 코너에도 도서관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벽면을 가득 채웠다.



“이진아기념도서관에 한마디” 코너에 붙은 포스트잇

물론 도서관에 근무하면서 항상 좋은 소리만 듣는 것은 아니다. 도서관도 월급 받고 일하며 여러 사람을 상대하는 곳이다 보니 종종 자존감에 상처를 받는 일들을 겪기도 한다. 매일 규정에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도서관 이용을 방해하는 무례한 이용자를 상대해야 한다. 2019년에 서울도서관에서 수행한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위탁 및 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열 명 중 일곱 명이 이용자로부터 폭언을 들었고, 14.9%가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경험했다. 평균 근속 연수도 4.5년에 불과하고, 급여는 입사 후 몇 년간 최저 시급을 넘기지 못하는 수준이다. 도서관 규모와 보유 장서 수에 따라 법으로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적정 인력 수를 정해 놓긴 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이를 지키는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 항상 일손이 부족하다.

주말 근무 때문에 가족과 함께 주말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것도 사서가 겪는 어려움 중 하나다. 우아한 백조가 물 밑에서 쉴 새 없이 발을 구르듯, 도서관에서 일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녹록지 않다. 그래도 사서라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는 것이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적지 않은 돈과 노력을 들여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취업이라는 어려운 관문을 거쳐 그토록 바라던 사서가 되었다는 성취감과 유네스코 공공도서관 선언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개인과 집단의 평생학습, 자율적 의사결정, 그리고 문화적 발전을 위한 기본 조건을 제공”하는 일을 한다는 사명감이 바로 그것이다. 가끔 성취감과 사명감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이용자가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가 사서에게 큰 힘이 된다. 혹시 도서관 직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일이 있을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

면, 당사자에게 직접 인사를 전하는 것도 좋지만, 도서관 홈페이지나 시·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실명을 명시하여 칭찬의 글을 남긴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

#### **송재술(서대문구립도서관 관장)**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20년간 도서관 분야에서 일해 왔다. 현재는 서대문구에서 열정 가득한 동료 직원들과 함께 이진아기념도서관을 비롯한 3개 공공도서관과 14개 공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에 없는 책』과 『도서관을 통한 지역사회 프로그램』 집필에 참여했다.

[사람과 책을 연결하는 사람들]

## 북튜버, 축의 전환

- 독서 기록에서 좋음의 전달로

---

공백(북 크리에이터)

2021. 5.

자세를 가다듬고 휴대폰 카메라의 녹화 버튼을 누른다. 만면에 생기 있는 웃음을 띠며 말한다. “안녕하세요. 공백입니다.” 목소리가 좋지 않다. 잠긴 목이 아직 풀리지 않은 모양이다. 헛기침 몇 번으로 목청을 가다듬은 후 다시 한 번 말한다. “안녕하세요. 북튜버 공백입니다.” 본격적으로 촬영이 시작되면 미리 준비해둔 스크립트를 단락 단위로 외워서 전달한다. 기억력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촬영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자꾸만 틀리게 말하고, 재촬영하기를 반복한다. 녹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 기억력이 원망스러워지지만, 재미있게도 나는 바로 이 나쁜 기억력 덕분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다.

‘책은 열심히 읽었는데 나중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는 독서인들의 고민을 종종 듣게 된다. 나는 대답한다. ‘독서 후에 반드시 아웃풋의 시간을 가지세요’. 읽은 내용을 요리조리 재구성하여 어떤 형식으로든 밖으로 꺼내놓으라는 뜻이다. 스스로의 말에 좀처럼 확신을 가지기 어려워하는 나지만 이 대답을 할 때만큼은 단호해진다. 이것은 일종의 간증이기 때문이다.

나는 스무 살이 넘어서야 책의 재미에 빠져들었다. 손에 잡히는 책들을 아무렇게나 호로록호로록 읽어 나간 지 몇 년쯤 지났을까. 슬슬 난감해지기 시작했다. 그간 읽은 책들이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었다. 밤새워 재미있게 읽은 책들도, 특별하게 여겼던 책들도 자꾸만 휘발되었다. 일기를 안 쓰면 바로 어제 일도 기억나지 않듯, 독서 생활에도 기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나는 다짜고짜 독서기록장을 쓰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나는 기억력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끈기도 없었다! 꾸준히 독서 기록을 남기겠다는 다짐은 금방 시들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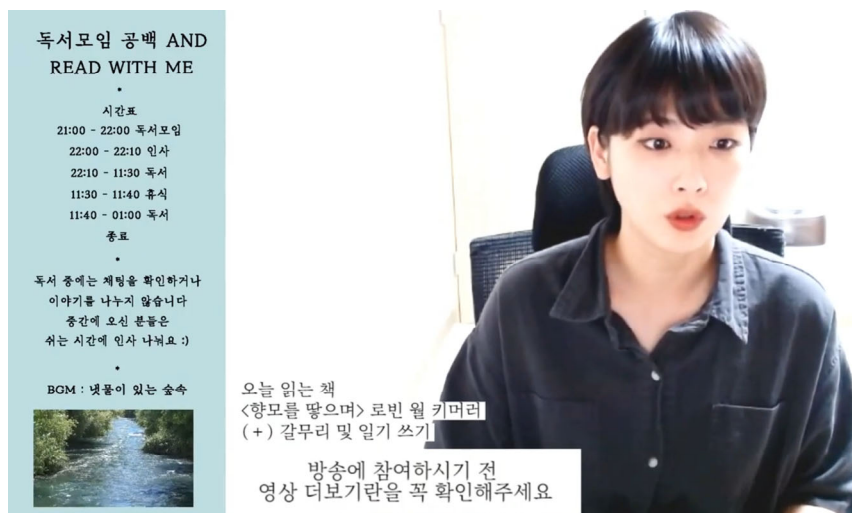
낙담한 나는 패인을 분석했다. 혼자 쓰고, 가끔 들춰보는 독서기록장은 내게 견고한 틀이 되어주지 못했다. 지구력이 없고 게으른 내게는 약간의 강제성이 필요했다. 나는 나를 조금 더 엄하게 다루기로 했다. 스스로를 옥철 도구로 유튜브를 선택했다. 독서 기록을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로 남기자! 미루거나 관두면 부끄럽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큰소리도 땡땡 쳐놓자! 2018년 10월에 개설한 채널 <공백의 책단


장)은 사실 책을 부지런히 읽고 효과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배수의 진이었던 것이다.

유튜브는 모두에게 개방된 독서기록장이었다(만인에게 공개되어 있었으나 한동안 아무도 봐주지 않았음을 고백한다...). 나는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인생책들, 베스트셀러들, 주목할 만한 책들, 최근 읽은 책들을 모아 열심히 촬영을 이어나갔다. 영상으로 재탄생한 책들은 어김없이 내 기억 속에 더 많은 잔여물을, 더 오래도록 남겼다. 기록과 강제성의 승리였다!

게다가 운 좋게도 구독자가 꾸준히 증가했다. 나를 위한 기록으로 시작된 유튜브가 점차 다른 방향으로, 즉 타인에게로 흘러가고 있었다. 재미있었다. 유튜브로서의 시간이 누적될수록, 기록의 존재 이유는 '나'라는 점에서 '시청자'라는 점으로 이동했다. 지금의 나는 '책을 잘 기억하고 싶다'가 아닌 '어떤 책의 장점을 타인에게 잘 전달하고 싶다'는 마음에 방점을 찍는다.

여기서 잠깐 멈춰야겠다. 이 글은 북튜버로서의 내 역사를 늘어놓기 위해 쓰인 글은 아니다. 여기에는 '좋은'을 전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북튜버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잠깐 다른 주제를 경유해보자.



독서모임 공백 AND  
READ WITH ME  
·  
시간표  
21:00 - 22:00 독서모임  
22:00 - 22:10 인사  
22:10 - 11:30 독서  
11:30 - 11:40 휴식  
11:40 - 01:00 독서  
종료  
·  
독서 중에는 채팅을 확인하거나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중간에 오신 분들은  
쉬는 시간에 인사 나눠요 :)  
·  
BGM : 냇물이 있는 숲속  


오늘 읽는 책  
<향모를 팔으며> 로빈 월 키머리  
(+) 갈무리 및 일기 쓰기

방송에 참여하시기 전  
영상 더보기란을 꼭 확인해주세요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야 마는 사람들이 있다. 지켜본 결과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고, 심지어는 하지 말라는 짓을 반복해서 자신의 버릇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 내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여럿 있는데 그중 세 명의 사연을 소개한다.

A는 주구장창 손톱을 물어뜯는다. 피가 날 때까지. 상처가 나고, 고름이 차고, 손톱이 들리다가 결국 빠져버릴 때까지 물어뜯는다. A와 나란히 앉아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딱딱딱(손톱 뜯는 소리), 남남남(손톱 먹는 소리) 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물어보면 어렸을 때는 엄마가, 지금은 내가 사랑을 덜 줘서 그렇단다. 사실무근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대답을 하는 A는 내 남편이다.

B는 어린 시절부터 속눈썹을 만지는 버릇이 있었다. 침대에 누워 잠들기 직전까지 자신의 속눈썹을 하얗게 만지곤 했는데, 이 버릇을 고치지 못했다면 지금쯤 B의 속눈썹은 몽땅 빠져서 한 올도 남아 있지 않았을 것이다. B는 커가면서 속눈썹을 만지는 행동 대신 새로운 버릇을 들었다. 유난히 곱슬거리는 머리(지랄 머리라고 부른다)를 빗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그 버릇은 내게도 전염되었고, 나와 B는 나란히 앉아서 멍렬하게 지랄 머리를 빗다가 엄마에게 혼이 나곤 했다. 이 행위는 두피의 상태를 고려해 소강과 재활성화를 반복해왔다. 나는 이 버릇을 거의 고쳤는데, B는 어떨는지 모르겠다. B는 우리 언니다.

마지막으로 C의 버릇은 거의 기억의 최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오래된 버릇이다. C는 잠자리에 누우면 곧장 이불 끝자락을 세모꼴로 접어 뾰족하게 만든다. 이 모서리로 손가락을 차례대로 문지른다. 열 번째 손가락을 문지르고 나면 다시 첫 번째 손가락부터 반복한다. 이불이 아닌 옷자락으로도 뾰족한 꼭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버릇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C의 남편은 열정적으로 손가락을 문지르는 C를 보면서 조만간 손끝이 다 닳아버릴 거라고, 종내에는 지문이 지워져버린 나머지 공황에서 특별 검문 같은 것을 받게 될 거라고 으름장을 놓곤 한다. 지문이 위태로운 인간 C. 바로 나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는다. 그냥 좋아서, 편해서, 안 할 수가 없어서, 참지 못해서 하는 것뿐이다. 그 결과 버릇은 고착되었고 타인이 아무리 말려도, 스스로 그만해야겠다고 다짐해봐도 도저히 끊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을 뿐이다. 버릇이라는 게 그렇다. 쉽게 고쳐질 리 없다. 세 살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쩌면 한평생에 가까운 기나긴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위 사례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지속된 버릇이 있는가 하면 성인이 되고 나서 뒤늦게 생긴 버릇도 있다. 내 경우에는 몇 가지 말버릇이 새로 생겼다. 스스로 말버릇을 감지할 수 있게 된 것은 북튜버가 되고 난 후였다. 영상을 편집하다 보면 녹화된 내 모습을 고스란히, 몇 번이고 돌려봐야 하는데(무척 괴롭다), 이 과정에서 내게 스며든 말버릇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내 목소리가 이래? 너무 이상해!’라며 놀랄 때, 나는 목소리보다는 내 말버릇에 깜짝 놀라게 된다. 내가 이 말을 이렇게 많이 쓴다고? 내가 이런 추임새를 이렇게 자주 쓴다고? 하면서.

북튜버인 내가 책을 소개할 때 자주 쓰는 말들은 다음과 같다.

“너무”

“좋았어요.”

“인상 깊었습니다.”

“권해드립니다.”

(보통 이 네 단어를 크리티컬 연속기로 사용하며, 10분 남짓한 영상에서 많게는 열 번 넘게 ‘좋다’는 말이 반복되기도 한다. 충격적이다.)

북튜브 채널을 구독하는 사람들은 어떤 책의 ‘좋음’을 구체적으로 듣길 원한다. 좋다는 말만으로는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 책이 어떤 부분이, 왜, 어떤 식으로 좋은지를 듣기 위해 십여 분의 귀한 시간을 투자해 영상을 본다. 그러므로 책을 소개하는 북튜버에게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과제가 주어지는데 그것은 좋은 책을 좋다는 말로만 표현하지 않는 것이다. 이미 ‘좋다’는 말이 입에 뱀 나오서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쯤 되면 ‘좋은 걸 좋다고 말하는 게 뭐 어때서!’라며 반항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너무 좋아요’와 ‘정말 인상 깊었어요’를 남발하는 리뷰란 어떤 느낌일까. 안 봐도 무지하게 재미없는 리뷰일 것만 같다……. 그런 말만 주구장창 늘어놓다가는 북튜브 계에서 소리소문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 분명하다.

이 치명적인 말버릇을 고치기 위해, 나는 요즘 일상 속에서 한 가지 훈련을 하고 있다. ‘이말 저말 다 써보기 훈련’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얼마 전 책을 읽다가 나와 같은 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 바로 김하나 작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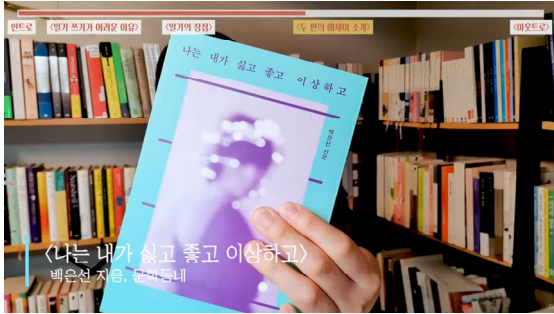
“어휘를 다양하게 활용하지 못해서 반복이 잦은 단어나 구절이 들리면 그것을 어떤 어휘로 대체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다. 이를테면 ‘베스트셀러가 되다’라는 뜻으로 ‘인기가 많다’ ‘화제가 되다’ ‘굉장한 주목을 받다’ ‘독자들을 사로잡다’ ‘대박이 나다’ ‘핫이슈가 되다’ ‘파란을 일으키다’ ‘순위에서 내려오지 않다’ ‘팬층을 확보하다’ 등등 뉘앙스가 조금씩 다른 다양한 표현을 쓸 수 있다. 생각을 한 번쯤 해보기만 해도 다음 녹음에서는 매번 쓰는 단어가 아닌 다른 단어들을 대화에 활용해볼 수 있다.” - 김하나 『말하기를 말하기』 중

이 글을 읽는 순간, 나는 내가 바른길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김하나 작가는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멋진 목소리로, 가장 멋지게 말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말하기 계의 대왕 프로랄까(그냥 프로 아니고 ‘대왕’ 프로). 나는 더 열심히 훈련을 계속해나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최근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나는 얼마 전 백은선 시인의 산문집 『나는 내가 싫고 좋고 이상하고』를 읽고 이 책을 유튜브로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스크립트를 쓰다 보니 버릇대로 저 위의 단어들을 줄줄 반복하고 있었다. *너무 좋았어요. 인상 깊었어요. 권해드립니다.*

나는 곧장 이 단어들을 제쳐두고 다른 단어를 찾기 시작했다. *매력적이다. 치명적이다. 솔직하다. 날것이다. 다채롭다. 과감하다. 공감된다. 좋아하지 않고는 못 배긴다. 변화무쌍하다. 멜랑콜리하다...* 열 개의 단어를 찾아내 스크립트에 적절히 배치했다. 처음보다 조금은, 아주 조금은 더 나은 대본이 된 것 같았다.

북튜버의 일상을 글로 써달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나는 독서법도, 촬영 노하우도, 편집의 지남함도 아닌 이 일에 대해 쓰고 싶었다. 그러니까, 좋음을 좋다고만 말하지 않는 것이 북튜버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북 크리에이터 공백이는 다채로운 말로 맛깔나게 책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고, 승승장구하여 스타 북튜버가 되었습니다...’라고 끝맺으면 좋겠지만 이 글에는 작은 반전이 있다.

나는 요즘도 그놈의 ‘좋다’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버릇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 그 말을 기어이 또 꺼내 쓰는 게 민망하기 때문에 온갖 비언어적 표현을 동반하는 구차함까지 갖추게 됐다. 예를 들면 두 손을 기도하듯 간절하게 맞잡으며 호소하거나(“제발 이 책을 읽어주세요”) 엄지를 힘차게 추켜세우는 식으로(“이 책 진짜 엄청 좋아요. 나 지금 진심임”)...

이 글을 빌어 불특정 다수의 구독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떻게든 책의 장점을 전달해보려는 제 눈물겨운 노력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한두 번의 ‘좋음’ 발사는 좀 봐주시길, 제 빈곤한 설명을 찰떡같이 알아들어주시길, ‘좋아요’라는 말이 진절머리 나더라도 영상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은 꼭 눌러주시길,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책들을 꼭 한 번 펼쳐봐주시길.

---

### 공백(북 크리에이터)

책을 권하는 유튜브 채널 <공백의 책단장>을 운영한다.  
다수의 북토크, 강연, 독서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KPIPA 출판산업 동향]  
**2020년 하반기 KPIPA 발행 통계 및 심층분석**  
- 코로나19 시대, 출판동향

---

정책연구통계센터, 백원근(책과사회연구소 대표)

2021. 5.

---

〈2020년 하반기 출판산업 생산 동향〉

정책연구통계센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국내 출판산업 생산, 판매, 소비 지수 등의 추이 변화를 주기별로 파악할 수 있도록 「KPIPA 출판산업 동향」을 반기 단위로 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통계 자료의 적시성과 출판계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웹진을 통해 「KPIPA 발행 통계」를 선 공개하고자 한다. 발행 통계는 교보문고, 반디앤루니스,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24, 출판유통진흥원, 국립중앙도서관 도서 목록 중 국내 발행 도서를 대상으로 반기통계용 도서 분류 기준(만화, 잡지 제외)에 따라 통계를 산출하여 재분류하였다. 산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분석 원고도 함께 공개한다.



## <2020년 하반기 출판산업 트렌드 심층분석>

백원근(책과사회연구소 대표)

### (1) 출판동향

#### 가) 통계 분석

##### ① KPIPA 발행 종수 개요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교보문고, 예스24, 출판유통진흥원, 국립중앙도서관 등의 자료를 취합하여 작성한 2020년 하반기 도서 발행 종수는 총 38,510종으로 전년 동기(2019년 하반기) 대비 1.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연간 합산 도서 발행 종수는 76,724종으로 2019년(81,715종)에 비해 6.1%p 감소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상반기에 다소 주춤하던 출판 활동이 하반기에는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 2020년 하반기 발행 통계

(단위 : 종, %)

상위 분류	기본 분류	발행 종수					전년 동기 대비		전기 대비	
		2018년	2019년	2019년	2020년	2020년	증감수	증감률	증감수	증감률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유아동	유아	1,181	1,495	1,368	1,565	<b>1,894</b>	526	38.5	329	21.0
	아동(어린이)	2,471	1,772	2,702	2,246	<b>1,936</b>	-766	-28.3	-310	-13.8
	소계	3,652	3,267	4,070	3,811	<b>3,830</b>	-240	-5.9	19	0.5
교육	초등학습	1,912	2,231	2,154	1,710	<b>2,218</b>	64	3.0	508	29.7
	중고학습	2,852	2,380	2,447	1,706	<b>2,177</b>	-270	-11.0	471	27.6
	외국어	951	1,062	889	825	<b>761</b>	-128	-14.4	-64	-7.8
	취업/수험서/자격증	3,960	7,618	4,365	5,775	<b>4,175</b>	-190	-4.4	-1600	-27.7
	소계	9,675	13,291	9,855	10,016	<b>9,331</b>	-524	-5.3	-685	-6.8
문학	소설	3,835	3,526	3,598	2,978	<b>3,088</b>	-510	-14.2	110	3.7
	시/에세이/희곡 등	3,790	3,458	4,415	3,659	<b>4,904</b>	489	11.1	1245	34.0
	소계	7,625	6,984	8,013	6,637	<b>7,992</b>	-21	-0.3	1355	20.4
인문	철학/심리	915	903	850	1,024	<b>896</b>	46	5.4	-128	-12.5
	역사/문화	1,085	989	973	884	<b>1,166</b>	193	19.8	282	31.9
	종교	2,594	2,686	2,702	2,409	<b>2,558</b>	-144	-5.3	149	6.2
	기타 인문학	1,306	1,105	1,209	984	<b>1,389</b>	180	14.9	405	41.2
	소계	5,900	5,683	5,734	5,301	<b>6,009</b>	275	4.8	708	13.4
예술/대중문화	예술/대중문화	1,815	1,653	2,111	2,013	<b>2,019</b>	-92	-4.4	6	0.3
실용	자기계발	719	829	699	666	<b>721</b>	22	3.1	55	8.3
	가정/생활	271	271	288	353	<b>486</b>	198	68.8	133	37.7

상위 분류	기본 분류	발행 종수					전년 동기 대비		전기 대비	
		2018년	2019년	2019년	2020년	2020년	증감수	증감률	증감수	증감률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요리/취미	541	606	476	447	<b>546</b>	70	14.7	99	22.1
	건강/스포츠/레저	509	545	451	503	<b>472</b>	21	4.7	-31	-6.2
	여행	421	527	458	302	<b>259</b>	-199	-43.4	-43	-14.2
	소계	2,461	2,778	2,372	2,271	<b>2,484</b>	112	4.7	213	9.4
사회과학	정치/사회	2,960	3,225	2,302	2,511	<b>2,193</b>	-109	-4.7	-318	-12.7
	경제/경영	1,885	2,078	1,726	1,883	<b>1,629</b>	-97	-5.6	-254	-13.5
	소계	4,845	5,303	4,028	4,394	<b>3,822</b>	-206	-5.1	-572	-13.0
과학기술	IT/컴퓨터	640	807	676	808	<b>666</b>	-10	-1.5	-142	-17.6
	자연과학	443	552	481	460	<b>475</b>	-6	-1.2	15	3.3
	기술공학	2,086	2,215	1,842	2,503	<b>1,882</b>	40	2.2	-621	-24.8
	소계	3,169	3,574	2,999	3,771	<b>3,023</b>	24	0.8	-748	-19.8
합계		39,142	42,533	39,182	38,214	<b>38,510</b>	-672	-1.7	296	0.8

출처: 정책연구통계센터

자료 제공 : 교보문고, 반디앤루니스,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24, 출판유통진흥원, 국립중앙도서관

주 : ① 교보문고, 반디앤루니스,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24로 입고된 2018년 하반기 도서목록과 출판유통진흥원의 2018년 하반기 도서목록(북센, 한국출판협동조합, 중소서점 POS 자료),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도서목록을 취합한 국내 발행 도서를 반기통계용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통계를 산출함. 만화(아동용 만화는 포함)와 잡지, 교구, 전자책, CD/DVD는 제외함

② 기존 서점 분류와 가장 큰 차이점은 각종 기능사 자격증, 국가고시 준비 도서를 서가 배치 기준(과학기술, 사회과학 등)이 아닌 도서의 특성에 따라 '취업/수험서/자격증' 분야로 편입한 것임

## ② KPIPA 출판 분야별 발행 종수 추이

- 2020년 하반기의 전년 동기 대비 분야별 발행 추이에서 유아동 분야는 '유아'가 38.5%p 증가한 반면 '아동(어린이)'은 28.3%p 감소했고, 교육 분야에서는 '중고학습'(-11.0%p)과 '외국어'(-14.4%p) 모두 두 자릿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학 분야에서는 '소설'(-14.2%p)의 발행 종수가 줄고, '시/에세이/희곡 등'+(11.1%p) 비소설 부문이 증가하여 대조적이었다. 인문 분야에서는 '역사/문화'+(19.8%p)와 '기타 인문학'+(14.9%p)의 발행 종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고, 실용 분야에서는 '가정/생활'+(68.8%p)과 '요리/취미'+(14.7%p) 부문의 발행 종수가 증가한 반면 '여행'(-43.4%p)은 감소 폭이 상당히 컸다. 이와 같은 발행 종수 변동의 가장 큰 변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었다. 특히 교육서 및 실용서는 그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다.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등교가 줄었으며, 홈스쿨링과 재택근무가 증가함에 따라 '집콕'(집에서 지내기) 생활이 증가하고 국내외 여행이 감소해 해당 분야의 발행 종수 증감에 영향을 미쳤다.
- 출판계 매출액 상위권 78개 출판사의 매출 실적을 취합한 <2020년 출판시장 통계>(대한출판문화협회, 2021.4)에서도 교육출판 부문 출판사들의 총매출액은 전년 대비 11.1%p 감소했고, 단행본 부문 출판사들의 총매출액은 10.8%p 증가했다. 교보문고 결산(<2020년 연간 도서판매 동향 및 베스트셀러 분석>)에서도 대부분의 도서 분야 매출액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한 가운데 여행서 -62.3%p, 외국어 -9.5%p 등의 매출 하락이 나타나 대체로 분야별 발행 종수 증감과 매출액 변동은 연동되는 양상을 보였다.

- 2020년 하반기의 전년 동기 대비 분야별 신간 도서 발행 분포(비중)는 ‘아동(어린이)’(-1.9%p)과 ‘소설’(-1.2%p) 부문이 감소하고, ‘유아’(+1.4%p)와 ‘시/에세이/희곡 등’의 비소설(+1.5%p) 부문은 증가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환경 속에서도 유아 도서의 발행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꾸준한 구매 수요가 확실히 뒷받침되는 유아 출판시장의 특성이 반영된 현상이다. ‘유아’ 부문 발행 종수는 하반기 기준 2018년 1,181종, 2019년 1,368종, 2020년 1,894종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연간 4천억 원 규모로 추산하는 웹소설 시장의 급속한 성장세와는 상반되게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전통적인 ‘소설’ 부문, 에세이를 필두로 비소설 부문의 발행 종수가 증가하는 문학출판의 지형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3년간 하반기 기준 ‘소설’ 발행 종수는 2018년 3,835종, 2019년 3,598종, 2020년 3,088종으로 감소세가 뚜렷하다. 반면 비소설(‘시/에세이/희곡 등’) 부문의 발행 종수는 2018년 3,790종, 2019년 4,415종, 2020년 4,904종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지난 3년 사이에 ‘소설’ 발행 종수는 19.5%p 감소하고 비소설 부문은 29.4%p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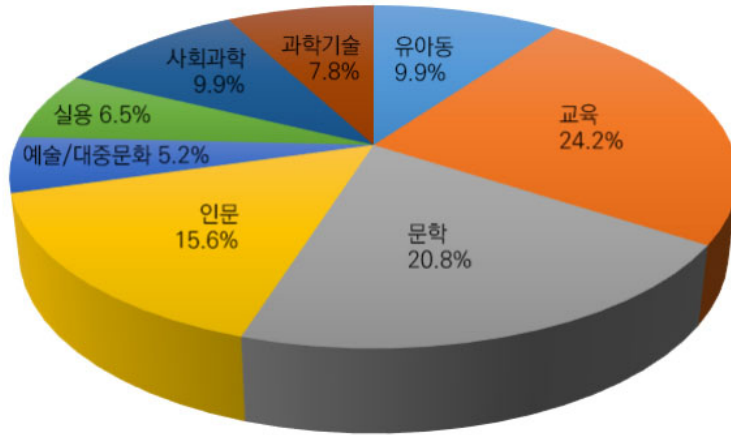
### 2020년 하반기 신간도서 발행 분포

(단위 : %, %p)

상위 분류	기본 분류	기본 분류 기준 구성비			상위 분류 기준 구성비		
		2019년	2020년	전년 동기 대비	2019년	2020년	전년 동기 대비
		하반기	하반기	증감률	하반기	하반기	증감률
유아동	유아	3.5	<b>4.9</b>	1.4	10.4	<b>9.9</b>	-0.8
	아동(어린이)	6.9	<b>5.0</b>	-1.9			
교육	초등학습	5.5	<b>5.8</b>	0.3	25.2	<b>24.2</b>	-0.9
	중고학습	6.2	<b>5.7</b>	-0.6			
	외국어	2.3	<b>2.0</b>	-0.3			
	취업/수험서/자격증	11.1	<b>10.8</b>	-0.3			
문학	소설	9.2	<b>8.0</b>	-1.2	20.5	<b>20.8</b>	-0.5
	시/에세이/희곡 등	11.3	<b>12.7</b>	1.5			
인문	철학/심리	2.2	<b>2.3</b>	0.2	14.6	<b>15.6</b>	1.0
	역사/문화	2.5	<b>3.0</b>	0.5			
	종교	6.9	<b>6.6</b>	-0.3			
	기타 인문학	3.1	<b>3.6</b>	0.5			
예술/대중문화	예술/대중문화	5.4	<b>5.2</b>	-0.1	5.4	<b>5.2</b>	-0.1
실용	자기계발	1.8	<b>1.9</b>	0.1	6.1	<b>6.5</b>	0.4
	가정/생활	0.7	<b>1.3</b>	0.5			
	요리/취미	1.2	<b>1.4</b>	0.2			
	건강/스포츠/레저	1.2	<b>1.2</b>	0.1			
	여행	1.2	<b>0.7</b>	-0.5			
사회과학	정치/사회	5.9	<b>5.7</b>	-0.2	10.3	<b>9.9</b>	-0.6
	경제/경영	4.4	<b>4.2</b>	-0.2			
과학기술	IT/컴퓨터	1.7	<b>1.7</b>	0.0	7.7	<b>7.8</b>	0.8
	자연과학	1.2	<b>1.2</b>	0.0			
	기술공학	4.7	<b>4.9</b>	0.2			
합계		100.0	<b>100.0</b>	-	100	<b>100</b>	-

출처: 정책연구통계센터

2020년 하반기 신간도서 분야별 비중



③ KPIPA 출판사 발행 실적 추이

- 발행 실적이 있는 출판사 수는 2019년 하반기 5,771개에서 2020년 하반기에 5,650개로 2.1%p 감소하였다. 이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출판사 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출판 활동을 펼치는 곳은 제한적인 상황에 변화가 없고, 코로나19로 인해 신간 발행에 신중해진 현상을 보여준다.
- 발행 실적 구간별로 보면 반기별(하반기 기준) 5종 이하의 신간을 발행한 출판사의 분포가 전체의 76.7%(2019년 하반기)에서 77.3%(2020년 하반기)로 증가한 반면, 6~10종 발행 출판사는 10.7%에서 10.6%로, 11~30종 발행 출판사는 8.9%에서 8.5%로, 31종 이상 발행 출판사는 3.7%에서 3.6%로 각각 미미하게 감소했다. 신간 도서 발행 실적별 비율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반기별 1종 발행 출판사는 2019년 2,325개사(점유율 40.3%)에서 2020년 2,386개사(42.2%)로 증가했고, 반기에 101종 이상 다품종을 출판한 출판사도 46개사(0.8%)에서 51개사(0.9%)로 증가하는 등 양극화가 심화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2020년 하반기 발행실적별 출판사 수

(단위 : 개, %)

발행 종수		2019년 하반기		2020년 하반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출판사 수	구성비	출판사 수	구성비	
1~5종	1종	2,325	40.3	2,386	42.2	2.6
	2종	941	16.3	914	16.2	-2.9
	3종	557	9.7	478	8.5	-14.2
	4종	351	6.1	352	6.2	0.3
	5종	251	4.3	235	4.2	-6.4
	소계	4,425	76.7	4,365	77.3	-1.4
6~10종	6종	198	3.4	179	3.2	-9.6
	7종	159	2.8	142	2.5	-10.7
	8종	102	1.8	125	2.2	22.5
	9종	88	1.5	76	1.3	-13.6
	10종	72	1.2	76	1.3	5.6
	소계	619	10.7	598	10.6	-3.4

발행 종수		2019년 하반기		2020년 하반기		전년 동기 대비
		출판사 수	구성비	출판사 수	구성비	증감률
11~30종	11~15종	252	4.4	234	4.1	-7.1
	16~20종	124	2.1	122	2.2	-1.6
	21~25종	93	1.6	83	1.5	-10.8
	26~30종	46	0.8	42	0.7	-8.7
	소계	515	8.9	481	8.5	-6.6
31종	31~40종	71	1.2	60	1.1	-15.5
	41~50종	40	0.7	36	0.6	-10.0
	51~100종	55	1.0	59	1.0	7.3
	101종이상	46	0.8	51	0.9	10.9
	소계	212	3.7	206	3.6	-2.8
합계		5,771	100.0	5,650	100.0	-2.1

출처: 정책연구통계센터

## 나) 주요 출판 트렌드

### ① 코로나19 출판기획

- 출판계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대유행(팬데믹) 시대를 맞아 '코로나19 콘텐츠'를 꾸준히 공급했다. 초기에는 의학 측면에서 바이러스 감염병을 짚고 분석한 책들이 나오기 시작해, 삶의 변화와 사회 각 분야별 해법을 모색하는 책들이 다양하게 발행되었다. 예스24는 2020년 1월에서 11월 사이에 발행된 코로나19 관련서가 285종이라는 집계 결과를 내놨다. 경제·경영서 80종, 사회·정치 54종, 종교 35종, 에세이 22종, 건강·취미 19종 등의 순이다. 판매 측면에서는 『김미경의 리부트 : 코로나로 멈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법』, 『코로나 이후의 세계』, 최재천·장하준 등 석학들이 진단한 『코로나 사피엔스』, 『코로나 투자 전쟁』, 의료부터 인문학까지 분야별 대처법을 제시한 『포스트 코로나 사회』가 주목받았다. 출판사마다 '코로나19 출판기획'에 나서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노력으로 분주했다. 출판은 타업종 대비 피해가 적었고, 오히려 성장을 이룬 곳들도 적지 않았다. 이는 독서가 비대면 활동이라는 특성 이외에도 학교 온라인 수업과 도서관 휴관에 따라 도서관 대출 수요가 구매 수요로 전환되었고, 분야별로 발 빠른 대응 콘텐츠 공급과 온라인 플랫폼(인터넷서점)과 디지털 콘텐츠의 역할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② 방구석 독서

- 제목에 '방구석'을 붙인 책들이 줄을 이었다. 팬데믹 상황에서 외출을 삼가야 하는 '집콕' 독자층의 처지를 콕 집어낸 것 같은 콘셉트가 시의성을 얻었다. 삶의 품격을 높이는 예술, 생존을 위한 재테크 책, 숨은 그림책, 어린이책에 이르기까지 '방구석' 책들은 분야가 다양하다. '방구석'이라는 열쇳말을 확산시킨 책은 2018년에 발행된 『방구석 미술관』이다. 10만 부 판매 기념으로 펴낸 '프라이빗 미술관 에디션' 오르세 미술관 편까지 더해 15만 부 이상 판매되면서 예술 분야 책으로는 보기 드물게 장기간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서점에는 이미 150여 종의 '방구석' 책이 넘친다. 적어도 코로나 19가 진정될 때까지는 이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집에서 편하게 읽을 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된

‘방구석’ 책은 분야와 주제의 제한 없이 번식하는 중이다.

### ③ 단문 세대를 위한 ‘쁘띠 교양’

- 짧은 호흡으로 부담 없이 여러 분야의 교양과 상식을 넓힐 수 있는 ‘쁘띠(petit) 교양’ 관련서가 다수 발행되며 영역을 넓히고 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식의 화법으로 말하자면 ‘공부는 싫지만 교양은 쌓고 싶어’라고 할 법한 독자들에게 맞춤형 책이다.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 수업 365』, 『하루 한마디 인문학의 기적』, 『좋아하는 철학자의 문장 하나쯤』, 『1일 1클래식 1기쁨』, 『읽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 1페이지 미술(철학, 한국사) 365』, 『아이를 위한 하루 한 줄 인문학』 등이 여기에 속한다. 교양과 인문학 등을 내건 책은 출판시장에 주요 키워드로 정착한 지 이미 오래되었고, 이에 더해 최근에는 읽기의 호흡이 짧은 단문 세대를 겨냥한 부담 없는 교양, 가성비 높은 교양서 출간이 빈번해지고 있다.

### ④ 주린이(주식 초보자)의 교과서

- 2020년 출판시장의 ‘황금 테마주’에 해당하는 것이 재테크, 특히 주식 투자 관련서의 폭발적인 성장세였다. 신규 주식 투자자가 증가하는 만큼 ‘주식 교과서’ 시장도 팽창했다. 판매와 신간 발행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며 경제경영서 분야가 출판시장의 선두로 올라서는 데 기여했다.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를 필두로, 돈과 부자를 내세운 『돈의 속성』, 『존리의 부자되기 습관』 등 재테크 관련서가 큰 주목을 받았다. 최근에는 슈퍼 개미 투자자의 투자 비법을 다룬 책들이 속속 출간되며 유튜브 팬덤을 이용해 손쉽게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한다. 2018년 무렵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비트코인’ 관련서에도 관심이 폭증하며 최근 누적 발행 종수가 400여 종으로 크게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생존의 어려움 증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증폭 등으로 젊은 세대가 대거 주식투자에 뛰어들며 ‘주린이’(주식 초보자, 주식+어린이) 대상의 도서들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앞으로는 판매 정점을 찍은 초보자 대상의 주식책보다는 투자전략서 중심으로 관련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⑤ 삶을 위로하는 음식책

- 매년 1천 종 정도가 발행되는 음식 관련서는 레시피 위주의 하우투(how-to) 실용서 성격에서 삶을 치유하고 정서적 허기를 채우는 책들로 라인업이 더욱 풍부해졌다. 『음식의 위로』, 『밥이 그리워졌다』, 『식탁의 위로』, 『스님과의 브런치』 등이 그 예다. 이 분야를 선도하는 민음사 세미콜론의 ‘땡’ 시리즈는 조식, 채식, 해장음식을 거쳐 라면, 힙귀와 『엄마 박완서의 부엌』을 펴냈고, 앞으로 짜장면, 병원의 밥, 평양냉면, 치킨, 카레, 삼각김밥까지 영혼의 허기를 달래주는 서울푸드 예찬을 이어갈 예정이다. 음식에 담긴 마음을 나누는 음식 에세이의 진화가 기대된다.

## (2) 출판산업 이슈와 과제

### 가) 도서정가제 개정 논란

-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의해 3년 단위로 재개정 논의가 이루어지는 도서정가제 조항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2020년 하반기에 크게 일어났다. 이해관계자에 따라 간극이 큰 입장 차이도 재확인시켰다. 작가, 출판, 서점, 도서관, 독서 관련 36개 문화계 단체들이 모인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는 도서정가제의 개악 반대(현행 유지)를 주장한 반면, 소비자나 전자책 단체를 중심으로 한 정가제 반대 여론도 컸다. 11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3년 전처럼 '현행 유지' 수준에서 도서정가제를 약간 보완하는 내용으로 정책 방침을 발표했다. 출판사의 재정가 책정 가능 기간을 도서 발행 후 18개월에서 12개월로 줄이고, 도서관 등의 공공 구매에서는 10% 한도 할인 이외의 추가적인 경제상 이익 제공을 없앤다는 것이 뼈대다. 이를 받아 11월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법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는 그간 요구가 많았던 지역서점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도 담았다.
- 책 생태계는 저자-출판-유통-도서관-독자 중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성립하기 어려운 동반자 관계 위에 있다. 독자의 독서권을 최대한 끌어올리며 책 생태계를 풍요롭게 하는 도서가격제의 실행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논란 봉합' 수준이 아닌 꾸준한 협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정가제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현행 15% 직간접 할인과 거품 가격 책정 논란, 웹소설 및 웹툰 등 연재형 콘텐츠나 월정 구독 모델에 대한 정가제 적용 문제 등을 전향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나) 저자와 출판사의 상생을 위한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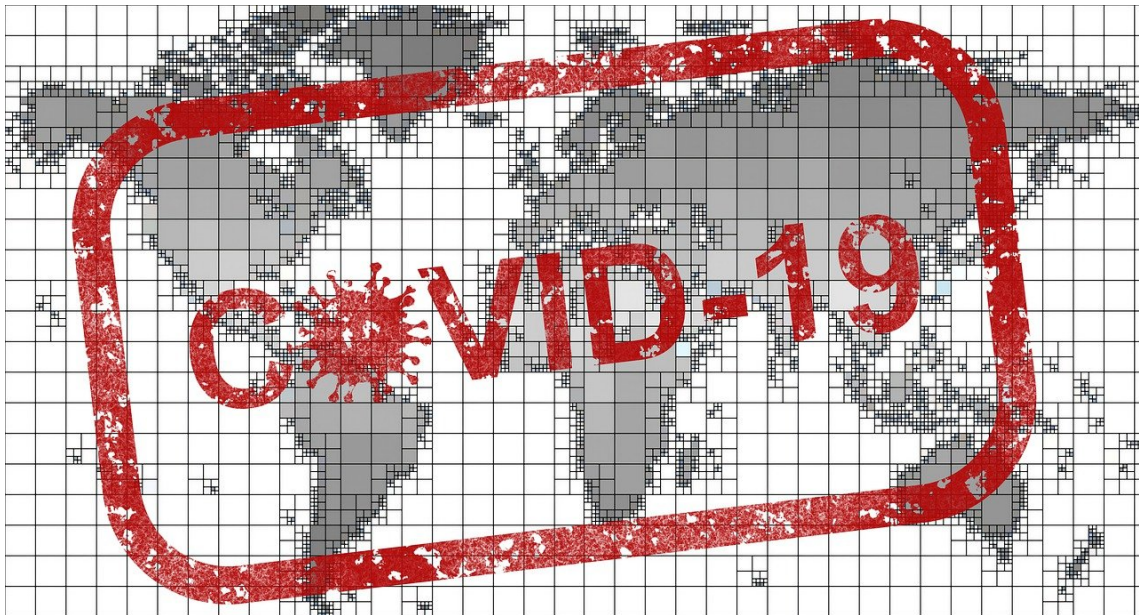
- 2020년에는 저자의 창작 윤리, 저작권 소송, 저자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를 문제 삼는 사건이 여럿 있었다. 사적인 대화를 무단으로 작품에 인용한 김봉곤 작가에 대한 '젊은 작가상' 수상 취소와 도서 환불 조치는 '재현에 대한 윤리'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또한 그림책 『구름빵』을 둘러싼 백희나 작가의 저작권 소송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 최종 패소 결정이 내려졌다. 김금희 작가가 불공정 계약을 이유로 수상을 거부하며 파문이 커진 '이상문학상 수상 거부' 사건은 기존 수상자인 윤이형 작가의 절필 선언과 동료 소설가들의 출판사에 대한 반발로 이어지며, 문학상 수상작 출판 관행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2021년 들어서는 정부와 출판단체가 각각 제정한 표준계약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저자와 출판사는 서로에 대한 의존 관계가 절대적이다. 저자는 책(출판)을 통해 세상으로 나아가고, 출판사는 작가의 원고로 업을 성립한다. 상호 의존적인 이인삼각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문화 정립이 선결 과제일 것이다.

>>> [KPIPA 출판산업 동향]에서는 매년 상반기 발행 통계 및 출판산업 트렌드를 심층 분석하여 소개합니다.  
(5월, 10월 「출판N」공개)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출판 프리랜서 지원사항 점검

김세나(퍼블리셔 운영자)

2021. 5.



-

“그냥 일이 없는 거죠. 아무리 기획안을 보내도 어떤 출판사도 검토해주지 않고, 상근으로 일하던 회사도 작년 말에 폐업했습니다.”

-

“일이 없는 게 가장 힘듭니다. 한창 전국이 숨죽일 때는 정말 문의조차도 딱 멈추더라고요. 수입이 0인 달도 있어서 그때 재난지원금을 못 받았으면 정말 손만 빨고 있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업계 전반이 힘들어지면 가장 먼저 일이 끊기는 것이 출판 프리랜서들 같습니다.”



“규모가 작더라도 지역마다 도서관을 더 많이 짓고 (기존 작은 도서관을 포함해) 도서 구입예산을 충분히 배정해주면 좋겠습니다. 특히 1인출판사와 소규모 출판사 도서 의무 쿼터를 둔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쇄가 도서관을 통해 대부분 소화될 수 있다면 최소한 존립은 할 수 있을 테고, 그렇게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출판 프리랜서들도 먹고살 수 있는 일감이 나올 거 같아요.”

출판 커뮤니티 ‘퍼블리셔’ 온라인 카페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1인출판사와 프리랜서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물었더니, 위와 같은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었다. 노동 안전망에 속하지 않은 프리랜서나 1인출판사 모두 수입이 급감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노동자 중 소득이 감소한 이들에게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였다. 가문에 단비 같은 지원이었지만, 해당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하여 신청하지 못한 이들도 있었다. 심지어 소득이 실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도 종종 볼 수 있었다.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프리랜서 대부분이 본인이 실제로 일하는 시기와 작업비를 지급 받는 시기가 다르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 외주 편집을 담당했어도 출판사로부터 작업비는 한두 달 뒤, 혹은 도서가 출간된 이후에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출판 프리랜서 A는 코로나19 이전에 참여했던 작업 비용을 몇 달 뒤 코로나19가 한창 심각할 때 지급 받았는데, 이로 인해 전산상으로는 소득이 감소한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난 게 되었다. 코로나19로 일감이 없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득 비교 시기와 입증 서류를 다양화하는 등 소외되는 대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아쉬운 대목이 존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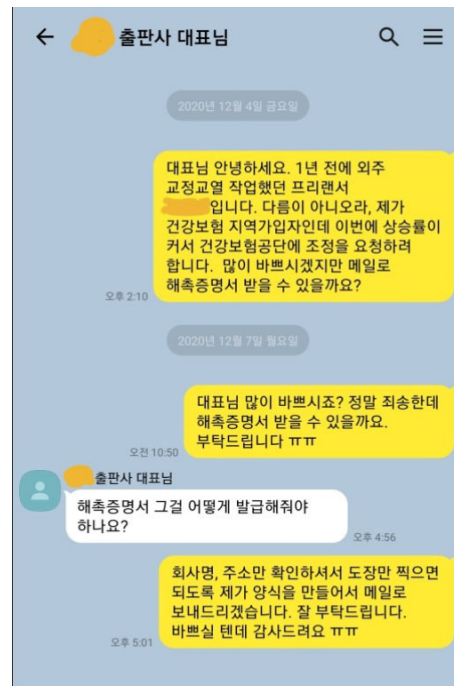
한편 지난 11월, 포털 사이트 인기 검색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랐다. 건강보험료와 관련해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문자를 받은 수많은 이들이 놀란 마음에 검색해본 것이다. 2018년에 소득이 없다가 2019년에 소득이 늘어난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새로 부과되거나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매년 11월은 건강보험료 심사 기간인데, 코로나19로 가뜰이나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시기에 세금까지 더해지니 속상한 이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보험료 인상을 막을 수 있는 걸 아는 프리랜서는 많지 않다.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가 날아오면 당연히 무조건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원천징수 3.3%를 공제하고 작업비를 지급 받는 출판 프리랜서들은 대부분 단기간 혹은 일회성 작업에 참여하는 이들인데,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고정된 수입으로 간주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에서 알아서 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고, 퇴사 시 자격 상실 신고까지 해준다. 그러나 프리랜서의 경우 본인이 이를 하나하나 챙겨야 하니,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는가. 심지어 이런 사항을 챙겨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예를 들어 2019년에 여러 출판사의 외주 편집을 맡아 3,0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다고 해보자. 이 출판 프리랜서는 2020년에 소득이 전혀 없어도 시스템상 2020년 12월부터는 연간소득 3,000만 원

기준으로 1년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이 경우 2019년에 소득을 지급했던 회사에서 본인이 더 이상 일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촉증명서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이에 맞게 건강보험료가 다시 산정된다. 이렇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거나 보험료 인상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출판 프리랜서가 일했던 출판사들에 1여 년이 지난 후 일일이 연락해 '해촉증명서'를 받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출판사 담당자도 해당 사항에 대해 잘 몰라서 출판 프리랜서는 이 서류가 왜 필요한지부터 차근차근 설명해야 하고,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출간 업무로 바쁜 담당자를 귀찮게 하는 것만 같아서 죄지은 것처럼 조심스럽다. 해촉증명서 양식을 아예 준비해서 보내줘야 그나마 입증 서류를 받는 과정이 수월해진다. 작업 시 출판사 담당자와 갈등을 겪었거나 임금 체불 등으로 불편한 관계가 되었다면 해촉증명서 받기는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 울며 겨자 먹기로 인상된 건강보험료를 내는 수밖에 없는 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해촉증명서 발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출판 프리랜서

매년 지속되었던 문제지만 코로나19로 가득이나 어려운 프리랜서들을 더 궁지로 몰았던 탓에, 작년 11월에는 이 문제가 더 크게 이슈화되었다. 근로소득자가 퇴직할 경우 근로자가 아닌 회사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것처럼, 프리랜서와의 계약이 종료될 경우에도 회사가 건강보험공단에 '계약종료신고'를 하고, 공단은 이를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그렇게 국민들의 관심에 힘입어 현재 국회에서도 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이 문제는 앞서 말했듯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생긴 문제는 아니다. 또한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출판 프리랜서분이겠느냐마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1인출판사나 프리랜서에게 대단히 낮은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에게 현 상황은 이미 오래된 풍경이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그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던가. 자가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외로움 역시 혼자 일하는 1인출판사나 출판 프리랜서들에게 이미 일상이지 않았던가. 다만 코로나19가 그들의 현 상황을 증폭시키는 촉매가 되었다고 본다. 그만큼 그들의 열악한 상황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외주 단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출판 프리랜서들이 받는 작업비는 달라지지 않았다.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최저임금제를 떠올려보자. 2011년 4,32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2021년 8,720원으로 두 배 이상 오른 것과 비교해보면, 어떤 보호조치 받지 못하고 있는 출판 프리랜서들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으리라.

외주 단가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출판계가 합의한 외주 표준 단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최

저 단가 기준이 있어야 한다. 쉽지 않은 문제임을 잘 안다. 누가 그것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작업의 양과 질, 난이도, 발주하는 출판사 경영상태, 프리랜서의 숙련도에 따라 비용 책정도 모두 제각각일 텐데 기준은 어떻게 둘 것인지, 사적인 계약을 공적인 영역에서 논의하는 게 합당한 것인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하지만 이는 출판계 전체가 의지를 갖고 반드시 풀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어떤 금액을 정하고 이를 법으로 강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제처럼 저임금 출판 프리랜서를 위한 최소한의 외주 단가 하한선을 만들어두고 권고하는 방식이라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출판계가 워낙 영세한 업종이다 보니 출판사가 프리랜서보다 열악한 경우도 많기에, 기준을 정하더라도 모두가 완벽히 지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알고' 일해야 한다. 터무니없는 작업비를 지급하는 출판사는 정당한 수준이 아닌 업계 최저 기준에도 못 미치는 비용을 프리랜서에게 지급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고, 출판 프리랜서 역시 본인이 출판사로부터 열악한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출판 프리랜서들의 권익만을 지키기 위한 일이 아니다. 최저 기준이 생기면 출판사는 좋은 인재와 함께 일하기 위해 정당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만들 것이고, 출판 프리랜서 역시 자신의 노동을 최소한이라도 인정해주는 곳과 일하고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렇게 출판계 근로 환경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한편 출판사도 외주 비용으로 얼마를 책정해야 하는지 기준이 없어 그동안 지급해왔던 대로, 혹은 주변에서 주는 대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충분히 합당한 수준을 지급할 수 있음에도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가 없었고, 그래서 의도치 않게 적은 비용을 주는 경우도 많지 않았겠는가. 작업비의 최저 기준이 생긴다면, 출판사도 프리랜서에게 혹시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프리랜서 역시 본인이 지나치게 작업비를 적게 혹은 많이 부른 건 아닌지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한 출판 프리랜서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주고 이들의 사기를 북돋아준다면, 이들이 만드는 콘텐츠의 질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돈 준 만큼 일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사실은 당연한 것이다. 대우가 좋아지면 출판 인재들이 열악한 환경에 지쳐 업계를 완전히 떠나버리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이렇듯 출판계가 합의한 외주 단가 기준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작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출판 프리랜서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직무교육이 과연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능력 및 지식과 관련한 재교육은 어떤가.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기에 이들에게 주어진 교육 기회는 근로자에 비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대부분 일회성이거나 단기 특강 형태로, 교육비 지원도 한정적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 확산이 가속화됨에 따라 출판 환경도 급변하면서 출판 프리랜서들의 노동은 더 불안정해졌으며, 새로운 업무 능력도 요구되고 있다.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툴 역시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끌어주는 이 하나 없이 모든 걸 혼자 힘으로 끄고 있을 출판 프리랜서들을 떠올려보자. 특히 50대 이상의 출판 프리랜서들은 새로운 직무교육 없이는 일자리 자체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인출판사나 출판 프리랜서를 위한 교육 기회가 더욱 많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1인출판사나 출판 프리랜서들이 겪고 있는 외로움에도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다. 꼭 정규교육이 아니더라도 근로자들은 회사 내 다른 동료들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지식, 노하우 등을 습득하고 고민을 나눌 기회가 있지만, 대부분의 출판 프리랜서들은 동료 자체가 거의 없다. IT 업계만 보더라도 각종 네트워킹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어 마음만 먹으면 동료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 그러나 출판계는 그렇지 않다. 한번 잘 생각해보자. 직장에서 만난 사이가 아니라면 동료를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있었던가. 그들에게 노하우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없었다. 이들을 위한 네트워킹 지원도 꼭 필요하다.

이 글을 읽고 누군가는 정부와 지자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차려서 떠먹여 줘야 하느냐고 물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배고픈 사람이 원한다면 챙겨 먹을 수 있도록 손가락 정도는 구비해두는 게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 아닐까. 나아가 손가락이 잘 준비되어 있다고 더 많은 출판 프리랜서들에게 알리는 일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1인출판사와 출판 프리랜서들에게 도움 되는 교육이나 지원이 있다면, 제도만 만들 것이 아니라 홍보에도 꼭 힘써주면 좋겠다.

앞서 말했듯, 코로나19로 인해 1인출판사와 출판 프리랜서에게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리하여 대단히 특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저 이들이 정당하게 대우받으며 일하고 본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좀 더 섬세한 손길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한때를 보내고 있고, 이로 인해 출판 프리랜서들의 처우도 바닥을 찍었다. 하지만 절망하기보다는, 이제 바닥을 딛고 떠오를 일만 남았다고 감히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다. 가장 힘든 지금이 역설적으로 이들이 처한 문제를 직시하는 계기가 되었고, 어쩌면 출판계의 오랜 관습을 바꿀 기회일지도 모르겠다. 앞서 말한 작은 노력부터 해보면 어떨까. 언젠가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모

두가 새로운 풍경을 맞이할 때, 출판 프리랜서들의 삶도 지금과는 꼭 달라져 있길 바란다.



---

**김세나(퍼블리셔 운영자)**

출판전문지 <기획회의>를 만드는 편집자, 이색서점 '세렌북피티' 대표를 거쳐 현재는 출판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출판하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다. 출판 크리에이터 'BOOK세나'로 활동하며 경기문화재단, 파주북시티, 밀리의서재, 리디북스, 북피알미디어, 경의선책거리, 디지털북센터 등이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다.

## 주식투자서 열풍의 원인과 전망

강현정(에스24 경제경영 MD)

2021. 5.

2021년 1월 9일 인터넷서점 에스24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주식투자서가 국내도서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 것이다. 그 주인공은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 77』(염승환, 메이트북스)로 2021년 1월 4일 등록된 후 단 6일 만에 발생한 일이었다. 심지어 해당 도서는 당시 예약판매 중이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당시 잠시 1위에 올랐던 『시골의사의 주식투자란 무엇인가』(박경철, 리더스북) 이후로 무려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염블리' 염승환과 함께라면 주식도 쉽고 재미있다**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 77**

주식초보자가 궁금해하는 77가지 질문에 '염블리' 염승환이 친절하게 답하다!

- 윤지호 센터장  
심포TV 김동원 소장  
오간영 부부장  
강력 추천!
- 어려운 내용을  
술술 풀어주는  
홍영상 강의  
20개 수록!
- 특별부록  
2021년  
주식 포트폴리오  
공개 및 해설!

메이트북스

주식투자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윤재수, 길벗)의 경우, 2019년 약 5천 부가 판매된 데 반해 2020년에는 그 여덟 배에 달하는 3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다. 또 주식투자 분야의 대표적인 스테디셀러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 13년간 주식으로 단 한 해도 손실을 본 적이 없는 피터린치 투자법』(피터 린치/존 로스차일드, 국일증권경제연구소)의 경우, 2019년 한 해 동안 약 4천 부가 판매된 데 반해 2020년에는 그 네 배에 달하는 1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다. 2020년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2020년 하반기부터 ‘주식’이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인터넷서점 인기 검색어 상위권에 있었고, 2020년 말과 2021년 초에는 줄곧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 주식투자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의 시작과 계기는 무엇이였을까?

첫 번째 시작은,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으로 촉발된 주가의 폭락과 급등에 있었다.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3월 코스피는 1,500선 아래로 추락했다가 7월 2,200선을 기록했고, 이후 11월에는 2,600선을 기록해 2018년 1월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2021년 1월 6일에는 사상 최초로 3,000선을 돌파했다. 과거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세계금융위기 직후 폭락했던 주식이 반등에 성공했던 경험을 기억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폭락장을 절호의 기회로 삼은 것이다. 2020년 개인투자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순매수를 기록해,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였다. 2020년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금액은 63조 8천억 원으로, 이는 종전 최대치인 2018년 10조 9천억 원의 무려 여섯 배에 이르는 규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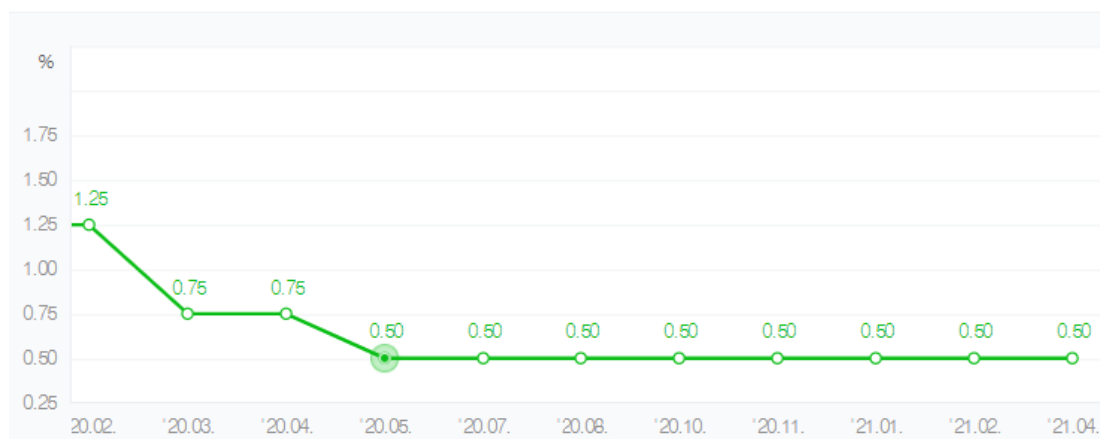


두 번째로, 한국은행의 저금리 정책 기조를 들 수 있다. 한국은행은 2020년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내리고, 같은 해 5월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로 낮춘 뒤, 현재까지 모두 일곱 차례 연속 같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저금리 기조하에 가계의 자금은 고수익 금융자산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거액이 요구되는 부동산 투자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

이 폭증했다. 지난해 가계금융자산(약 4,539조 원)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 대비 4.1%p 증가한 19.4%로 증가 폭이 가장 컸으며, 주식과 투자펀드를 합한 비율은 3.7%p 증가한 21.8%로 나타났다. 반면 예금과 채권 비중은 각각 1.5%p, 0.2%p 감소했다.

### 한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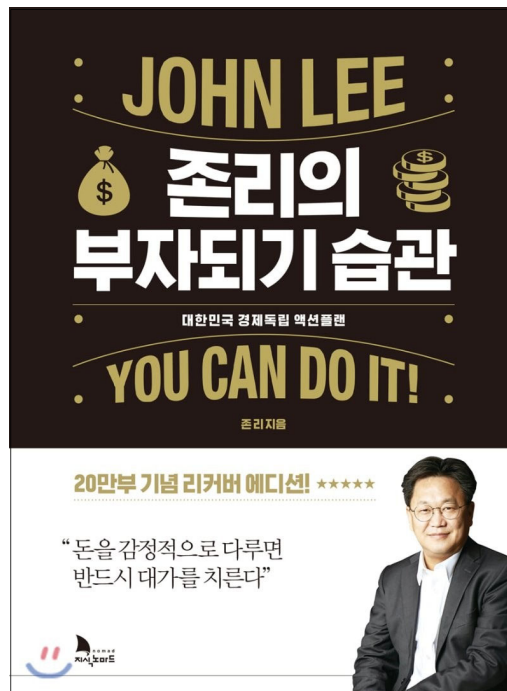
최근 1년 한국은행 기준금리

세 번째, 존 리의 등장이다. 2020년 한국에 '존 리'라는 인물이 등장했다. 그는 1980년대 초 연세대 경제학과를 자퇴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대 회계학과를 졸업했다. 그 후 KPMG의 전신인 피트마윅 (Peat Marwick)에서 회계사로 일하다가 미국 투자회사인 스커더 스티븐스 앤드 크락(Scudder Stevens & Clark)으로 옮겨 코리아펀드를 운영하면서 월가의 스타 펀드매니저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1984년에 설립된 코리아펀드는 한국 시장에 투자한 최초의 뮤추얼펀드로, 당시 저평가되던 한국의 주식들을 사들여 장기투자를 통해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1984년 상장 당시 600억 원이던 자산이 존 리 대표가 사임하던 2005년에는 1조 5천억 원으로 성장했다.

그가 2014년 미국에서 귀국한 뒤,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로 취임하면서 목격한 한국의 현실은 금융 문맹 2위국의 모습이었다. 메리츠자산운용 직원들조차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투자전문가들이 손절매를 이야기하는 이상한 나라였다. 그는 월가의 중심에서 오랫동안 펀드매니저로 일하면서 쌓은 경험과 철학을 모국의 투자자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말하며 한국의 투자문화 변화를 주도했다. 그는 부자의 길은 사실 놀라울 정도로 가까이 있으며, 과도한 소비를 투자로 바꾸는 라이프스타일의 전환만으로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외쳤다. 투자를 결심한 사람들을 위해 경제독립을 위한 10단계 과정을 제시하는 그의 대표작 『존리의 부자되기 습관』(존리, 지식노마드)은 2020년 3월과 4월에 걸쳐 예스24 국내도서 경제경영 분야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고, 하반기 내내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머물렀다.

돈은 모두에게 꼭 필요하고 정말 중요하지만, 참 이상하게도 돈을 경시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풍조를 안타까워한 존 리 덕분에, 2020년 많은 이들이 제대로 된 돈 공부와 투자 공부를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를 빼놓을 수 없다. 2020년 주식투자를 시작한 많은 이들이 주식 공부를 하고자 유튜브 주식투자 정보 방송을 즐겨보기 시작했다. 주린이들의 사랑과 함께 세간의 주목을 받는 스타도 탄생했는데,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 77』의 저자인 염승환(염블리)이 바로 그 대표주자이다. 133만 명이 구독하고 주식 분야의 가장 영향력 있는 유튜브 방송인 <삼프로TV\_경제의신과함께>에 매일 아침 출연해 주식시황 및 투자정보를 친절하고 성실하게 전달하는 그에게 많은 주린이들이 신뢰와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인기를 반영하듯 그의 저서는 출간되자마자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염승환 외에도 인기 주식 유튜버들의 콘텐츠가 책으로 출간되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23.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미국주식으로 은퇴하기 - 미주은>의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최철, 황금부영이), 18.7만 명이 구독하는 <뉴욕주민>의 『뉴욕주민의 진짜 미국식 주식투자』(뉴욕주민, 비즈니스북스), 구독자 26.8만 명을 보유한 <소수몽키>의 『소수몽키의 한 권으로 끝내는 미국주식』(소수몽키(홍승초), 길벗)이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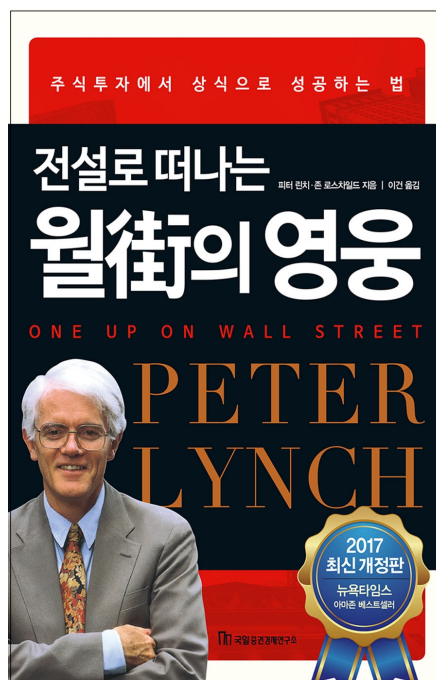
요즘 가장 영향력 있는 채널, 예를 들면 <MKTV 김미경TV>(구독자 134만 명)나 <신사임당>(구독자 144만 명), <김작가 TV>(구독자 76.8만 명)에 특정 도서의 저자가 출연하거나, 특정 도서가 소개되는 경우 해당 도서의 판매가 크게 오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식 분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도서 시장 전체적으로 달라진 흐름이다. 아마도 출판사들이 새로운 신간 출간을 위해, 새로운 저자 발굴을 위해, 또 주요 도서의 홍보를 위해서 지금 가장 주목하는 곳도 유튜브일 것이다. 필자 역시 도서 판매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주요 채널들을 구독하며 늘 주시하고 있다.

## 이토록 뜨거워진 주식투자, 그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될까?

한국은행은 지난 4월 1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작년에 이어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식에 대한 관심과 투자 열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을 계기로 많은 이들이 주식투자가 건전한 재테크 및 중요한 노후 준비 수단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2020년 주식시장의 핵심 키워드가 코로나19와 언택트였다면, 2021년은 코로나19 백신과 경기의 정상화가 될 것이다. 따라서 경기에 민감한 업종과 기업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주식투자자의 가장 떠오르는 이슈는 '미국 주식'이다. 그 중심에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한 '테슬라'가 있다. 『넥스트 테슬라를 찾아라』(홍성철/김지민, 에프엔미디어), 『똑똑한 주식투자 : 제2의 테슬라를 찾아라』(한국경제신문 및 한국경제매거진 특별취재팀, 한국경제신문사(한경비피)) 등 테슬라만큼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미국 구조적 성장주'에 대해 다룬 책들의 판매가 눈에 띈다. 한국의 미국 주식투자 규모는 예탁원 보관 잔액 기준 2016년 10조 원이었던 것이 2020년 28조 원으로 늘었는데, 이는 대한민국 전체 주식시장 규모인 약 2,000조 원에 비하면 1%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아마도 올해 이 수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식투자를 시작한 이들이 수익과 함께 손실을 경험하면서 투자 원칙을 점검하는 책들도 주목받고 있다. 앞서 말한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 13년간 주식으로 단 한 해도 손실을 본 적이 없는 피터 린치 투자법』(피터 린치/존 로스차일드, 국일증권경제연구소) 외에도 『주식 거인들에게 배우는 잃지 않는 투자 원칙 49』(김명환, 스마트비즈니스), 『지혜롭게 투자한다는 것 : 절대 잃지 않고 가장 오래 쌓는 투자의 대원칙』(버턴 말킬/찰스 D. 엘리스, 부키)이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주린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향후 경제 예측 도서를 추천하고 싶다. 세계 3대 투자가 짐 로저스의 대예언을 담은 『대전환의 시대』(짐 로저스, 알파미디어), 블룸버그 선정 세계 1위 미래학자인 제이슨 쉐커의 신작 『반란의 경제』(제이슨 쉐커, 리드리드출판), 2023년 역사상 최악의 버블을 예고하는 『트리플 버블』(한상완/조병학, 인사이트앤뷰) 이렇게 세 권이다.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는 말했다.

“뛰어난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간은 당신의 편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한국의 모든 주린이들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

**강현정(에스24 경제경영 MD)**

첫 직장인 에스24에 2007년 입사해 올해로 15년째 근무 중이다. 현재 도서팀에서 경제경영, 자기계발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편집자 이야기]  
편집자의 일에 대한 어떤 루머와 고민

이연실(문학동네 편집부 국내5팀장)

2021. 5.

파주출판도시 대로변 잔디밭에 언젠가부터 기묘한 조각상이 자리 잡고 있다. 허리를 잔뜩 구부리고 있는 이 인물상들은 언뜻 보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상체에 팔이 없어서 오스카상 트로 피처럼 보이기도 한다. 나는 어쩐지 이 조각상들이 째해서 출퇴근할 때나 점심시간에 괜히 그 앞으로 지나가다 멈추어 서곤 했다. 이것들이 영락없이 교정보느라 척추와 허리가 아작 나고, 근심 가득한 채 고개를 떨군 편집자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이 조각상은 이순복 작가의 ‘Men in pose’라는 작품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편집자의 신체를 빼닮은 이 조각상들은 출판도시 잔디밭에 웅기종기 모여서 저들끼리 영원히 고뇌하고 있다.



최근 나는 『에세이 만드는 법』이라는 책을 쓰면서 편집자의 즐거움과 기쁨, 이 일의 드넓은 가능성과 영역에 대해서 원 없이 썼다.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편집자들이 편집자라는 직업의 묘미에 대해서 써 왔다. 그 가운데서도 나는 1년에 자신이 편집한 책을 100만 부씩 팔아치웠다는 미노와 고스케라는 편집자가 기록한 편집의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한다.

편집자는 한 번이라도 대면하면 인생을 격변시켜줄 만한 천재들을 매일 만난다. 때로는 서로 얼굴을 붉히며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우애도 싹튼다. 독자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한 권의 책을 통해 가장 많이 성장하는 사람은 단언컨대 편집자다. 그저 읽기만 하는 사람보다는 직접 만드는 사람에게 저자의 생각이 더 많이 흘러들어가는 까닭이다.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 중인 사람들의 재능을 한데 모아 칵테일처럼 만들어 마신다. 이런 사치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 그 결과, 책을 만듦으로써 편집자 자신이 말도 안 될 만큼 성장해간다. 나는 내가 만든 책에 의해 만들어졌다.

- 미노와 고스케, 『미치지 않고서야』(구수영 옮김, 21세기북스 펴냄)



나는 이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편집자들은 독자들에게 즐거움과 보람을 선사하고자 그토록 노력하지만 미안하게도, 한 권의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편집자만큼 즐거운 독자는 없을 것이다. 심지어 때론 작가보다 행복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는데, 편집과 제작 과정에서 ‘책’이라는 예술품의 다면적인 즐거움과 궁극의 행복을 온전히 알고, 느끼고, 간직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편집의 즐거움과 묘미에 대한 얘기는 역시 세상에 너무나 많고, 편집자에게 필요한 것, 편집자의 어려움에 대한 얘기는 너무 적다고 느낀다. 나는 여기에 편집자들의 어깨와 허리를 구부정하게 만드는 편견과 시선, 그리고 내가 요즘 편집자의 일에 대해 고민하는 것에 대해 써보려 한다.

### 편집자는 ‘미완의 작가’가 아니다, 편집자는 편집자다

내가 바로잡고 싶은 편집자에 관한 세간의 루머 하나가 있다. 과거에 책을 좋아하지만 ‘작가 되기’에 끝내 실패한 자들이 출판편집자가 된다는 것이다. 아주 오랫동안 평론가나 편집자 같은 직종은 작가가 되고 싶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책 주변부에 남아 일하는 것이라는 편견 어린 시선들이 있었다. 편집자는 결국 어떤 식으로든 작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사실 나 자신이 이런 가설의 증거처럼 보이기도 한다. 나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때까지 내내 소설가가 꿈이었고, 대학 졸업학기 무렵 일단 돈을 벌기 위해 출판사에 취직했다. 그리고 편집일을 15년쯤 쪽 하다 보니 결국 내 이름으로 쓴 작은 책도 한 권 갖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편집자와 작가는 주종

관계나 상하관계가 아니고, 편집자가 작가로 나아가는 도정에 있는 중간단계의 업도 아니라고 본다. 책과 텍스트라는 같은 결과물을 다루지만, 편집자는 명백히 작가와는 다른 카테고리에 속하는 직종인 것이다.

편집자로 일하는 동안 나는 “그래도 글 쓰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그 일이 재밌어도 내 게 아니잖아요. 내 이름으로 쓴 책 갖고 싶지요?”라며 아련하고 축축한 시선으로 내 업을 보는 사람들을 종종 만났다. 이때마다 나는 “오랜 시간 작가를 꿈꾸며 살아왔지만 출판사에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그 꿈이 잊히더라”라고 답하곤 했다. 괜한 허세가 아니다. 내가 보고 싶은 책을 나보다 더 잘 쓸 수 있는 작가에게 의뢰하면 척척 나오는 이 일이 얼마나 재미있는데. 창작의 고통 없이도 내 마음에 쏙드는 책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으니 이건 ‘천하의 꿀잡’이 아닌 말이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나의 일에서 ‘이루지 못한 자의 결핍’을 집요하게 찾으려 하는 걸까?

내가 이런 시선에 불만을 갖는 이유는 편집자를 ‘미완의 작가’, ‘불운한 작가 지망생’으로 보는 시선이 책 만드는 과정에서도 어떤 착각과 불평등을 빚어내곤 하기 때문이다. 가끔씩 내 원고는 ‘손대지 말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작가를 만난다. 편집자를 전문성과 독자성을 가진 업이 아니라 ‘작가 되기’에 실패한 회사원으로 볼 때, 편집자의 교정교열 노동은 ‘작가의 찬란한 원고’에 괜히 손대는 시시껄렁한 업으로 추락한다.

얼마 전 이 업계에서 편집자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씩씩한 말을 들었다. 책 만드는 과정에서 본업이 따로 있는 어떤 작가들은 그 본업에 준해 편집자를 바라보는데, ‘연예인은 책 낼 때 편집자를 매니저로 보고, 교수는 편집자를 조교로 보며, 기업인은 편집자를 비서로 본다’는 것이다.

물론 편집자는 한 권의 책을 만들면서 그 책과 작가의 매니저이자 비서이자 조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도 한다. 한 권의 책을 책임지고 작가와 동행하는 동안 기꺼이 그 모든 것이 되어도 좋다. 그러나 그 이전에, 무엇보다 편집자이다. 원고가 책이 되는 과정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복디렉터로서의 편집자에 대한 이해 없이, 편집자라는 전문직에 대한 존중 없이, 그저 한 작가의 매니저나 조교나 비서가 되길 강요받을 때, 편집자들의 허리는 굽고, 그렇게 만들어진 책도 금세 빛이 바랜다.

## 편집자 정년 ‘마흔 즈음에’

편집자만큼 정년이 박한 직업도 없다. 흔히 출판사에 소속된 실무편집자의 정년은 마흔이라고들 한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 마흔에 다가가고 있는 중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나를 소개할 때 “장래희망은 백발이 돼서도 교정지가 든 에코백을 메고 저자 미팅 현장과 서점을 누비는 ‘현직’ 할머니 편집자”라고 소개하곤 했다. 나의 꿈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한국의 편집자들은 40대 무렵에는 결정해야 한다. 기성 출판사의 관리자로서 팀장이나 편집장이 되어 종종 기획하고 오케이 교정을 보되 대부분의 일과 시간에는 후배 편집자와 조직을 관리하고 매출을 책임지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온전히 독립하여 내 회사를 차려 사장이 될 것인가. 대략 30대 중후반에 선임편집자가 되어 이제 일은 손에 익고, 기획편집의 맛도 제대로 느껴보려는 찰나인데, 출판 조직 내에서는 결코 재미없는 상황들이 기다린다. 선임 혹은 중견 편집자들에게는 매출 압박과 조직 갱신,

대박 도서 기획의 요구가 끊임없이 따라붙는다. 편집자의 경력과 경험과 성찰은 대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예측하기 힘든 출판시장에서 몇 번의 정체나 실패는 대개 편집자의 능력 부족에 따른 결과로 돌려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때 중견 편집자들은 대체로 조직을 탈출하는 길을 택한다. 출판사 내에서 중견 편집자를 넘어 노(老) 편집자들이 끝까지 생존하는 경우가 드문 것은 이 때문이 아닐까?

물론 해마다 단군 이래 최악의 불경기를 기록하는 출판업계에서 중견 편집자들은 회사의 생존과 독자의 발견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한국에서 비교적 큰 종합출판사라 할지라도 매출규모는 겨우 중소기업에 불과하므로, 한 해 잘됐다고 해서 과감한 시도와 투자, 조직 확장을 시도하는 건 현명하지 못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해마다 매출목표는 연봉 인상분을 훌쩍 뛰어넘어 설정되는 와중에, 직원들을 위한 복지와 지원, 재투자에는 너무도 소극적인 조직에서 편집자들은 소진되게 마련이다. 편집자들에게는 해마다 에디터십과 매출 모두의 '성장'을 요구하면서, 회사와 조직은 편집자들의 업무 환경을 위해 전혀 '성장'하고 투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편집자들은 늘어감과 동시에 낡아갈 수밖에 없다.

나는 이 혹독한 출판업계에서 내가 과연 '현직' 할머니 편집자로서 잘 늘어갈 수 있을지, 오래 일할 수 있을지 실험해볼 작정이다. 더 나이가 들어도 내 업무 내역에서 관리자나 사장의 직무보다 '현직' 편집자의 업무 비중이 훨씬 더 높길 바란다. 아직 길은 잘 보이지 않고, 여전히 고민은 현재진행형이지만, 관리자나 사장이 되는 양단 간의 선택 외에도 이 재미있는 편집자라는 일을 오래 안정적으로 즐겁게 이어나갈 수 있는 제3의 길이 있길 바란다.

다시, 파주출판도시의 잔디밭에서 허리 굽은 조각상들을 바라본다. 아무래도 편집자들을 위한 상이 만들어지고 트로피를 제작한다면, 저 인물상을 본떠서 오스카상 트로피처럼 제작해도 좋겠다. 나는 내 주변의 편집자들에게 상을 주고 싶다. 출판 역사에 큰 획을 그은 대표님들이나 편집장님들께 주어지는 거창하고 묵직하고 유서 깊고 대단한 상 말고, 갓 입사해 폭발적인 열정을 보이는 3년 차 이하의 편집자들에게 올해의 신인 편집자상도 주고, 한창 활약하는 경력 편집자들에게도 기획상, 편집상, 분야별 편집상을 한없이 수여하고 싶다.

실무 편집자들은 자신이 만든 책이 칭찬받고 상 타고 잘 팔릴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지만, 막상 자신들은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다. 작가도 모르고 독자도 모를지라도, 나는 우리 업계에서나마 빛나는 젊은 편집자들에게, 또 직급이 높거나 네임드 편집자는 아닐지라도 오래 우직하게 견뎌낸 나이 든 편집자들에게, 정말 대단하다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끼리라도 그들을 주목하고, 상도 주고, 번아웃되기 전에 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하고 싶다. 그리하여 남들은 사양산업이라 부르는 이 출판업계에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내가 성장하고 빛을 발휘할 기회가 아직은 이 업계에 충만하다는 것을, 좌절하여 너무 지치기 전에, 나가떨어지기 전에 격려받고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트로피 모양은 역시 출판도시의 저 허리 굽은 동상을 닮은 게 좋겠지. 허리와 어깨를 굽히고 몸을 낮춰 교정 보고 생각하고, 이 업의 가장 밑바닥부터 끝없이 고뇌하는 것이 우리 편집자의 본질이고 업일 테니까.



---

**이연실(문학동네 편집부 국내5팀장)**

15년 차 에세이 편집자. 문학동네 편집팀장. 첫 출판사인 문학동네에서 쭉 일하며 김훈의 『라면을 끓이며』, 하정우의 『걷는 사람, 하정우』,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김이나의 『김이나의 작사법』, 이슬아의 『부지런한 사랑』 등을 만들었다.



## [저작물 수출 조건과 실상 ③] 한국어 저작물 수출의 미래를 위하여

신서희(임프리마 코리아 에이전시 과장)

2021. 5.

지난 1, 2부에 걸쳐 한국어 저작물 수출의 시작과 역사를 살펴보았듯이, 한국어 저작물의 수출은 위기와 기회를 반복하며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K-pop과 K-드라마 등 한국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일각에서는 K-book의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한국어 저작물, 즉 국내 출판 저작물이 K-pop과 K-드라마의 뒤를 이어, 한류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 수 있을까? 이번 편에서는 이른바 K-book의 현실과 가능성을 진단하고, 국내 출판 저작물의 수출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 K-book은 새로운 한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 K-pop과 K-드라마의 부가적 산물로서의 K-book

2020년 한국어 저작물 수출의 키워드는 한류였다. 지난 연재에서 언급했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봉쇄되며 급성장한 OTT(넷플릭스 등)를 통해 K-드라마 열풍이 불었고, 이는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의 원작 소설이나 대본집, 포토에세이 등의 문외와 계약으로 이어졌다. 특히 러시아에서는 최근작인 <철인 왕후>뿐만 아니라 <미남이시네요>, <시크릿 가든>과 같이 이미 오래전에 방영된 한국 드라마 관련 문외가 끊이지 않아 K-드라마의 인기를 여실히 느낄 수 있다.

다른 한 축에서는 K-pop, 그중에서도 BTS의 영향력이 한국어 저작물 수출을 지배하고 있다. 직접적으로는 BTS 멤버들이 읽었거나 추천한 책에 대한 문외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BTS를 다룬 책들까지도 계약이 성사되고 있다. 이와 같은 K-드라마와 K-pop의 인기는 한국어 교재의 인기도 끌어올리고 있다. 기존에 한국어 교재가 중국이나 대만, 동남아시아 위주로 수출되어 왔다면 최근에는 러시아는 물론, 프랑스와 같은 서유럽에서도 한국어 교재를 적극적으로 수입해 한류의 힘을 실감하게 한다.

## ‘글자’와 ‘언어’의 한계 - K-book을 가로막는 언어의 장벽

이처럼 K-드라마나 K-pop 등 인기 있는 한류 콘텐츠와 연관된 한국어 저작물의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관계없는 다른 출판 저작물은 한류의 물결에 동조하지 못하고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출판 저작물은 ‘글자’와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K-pop은 화려한 퍼포먼스와 음악으로 한국어를 몰라도 즐길 수 있다. K-드라마는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그 내용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그러나 책은 ‘번역’과 ‘출판’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해외 각국의 대중 앞에 선보일 수 있으며, 그 과정은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을 소모한다. 또한 책은 K-pop이나 K-드라마보다 소비자에게로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간과할 수 없다.

## 국내 인기가 해외 인기를 견인한다 - 자체 경쟁력의 문제

지난 20여 년간의 한국어 저작물 수출 실태를 돌아보았을 때, 해외 수출에서의 인기를 견인하는 것은 결국 해당 저작물이 국내에서 얼마나 인정받았느냐로 귀결된다. 즉 해외 독자를 사로잡기 위해서는 국내 독자를 먼저 사로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일본에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있는 학습 만화 ‘서바이벌 시리즈’, 논픽션으로서는 유일하게 미주와 유럽 지역에 수출된 『아프니까 청춘이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등의 공통점은 국내에서도 놀라운 판매량을 기록한 초대형 베스트셀러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출판 시장의 축소와 침체는 국내 출판 콘텐츠들의 자체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논픽션 베스트셀러는 일회성 이슈에 휘둘리는 책 위주로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픽션 베스트셀러의 경우 “팔리던 책만 팔리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은 출판 콘텐츠의 침체는 매력적인 콘텐츠의 부재를 나타내며, 이는 결국 수출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K-book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 무엇보다도, 양질의 콘텐츠가 필요하다

바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어 저작물의 수출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양질의 콘텐츠이다. 자국에서 인정받지 못한 비운의 작품이 해외에서 인정받는 기적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아주 드문 예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해외에서 성공한 대부분의 콘텐츠는 이미 국내에서 인정받은 콘텐츠이다. 더구나 전 세계적으로도 출판 시장의 불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해외 출판사들 역시 더욱 “잘 팔리는” 저작물 또는 “잘 팔 수 있는” 콘텐츠에 집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의 힘으로 독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다.

## 좋은 번역이 수출의 가능성을 높인다

음악은 청각으로, 드라마나 영화는 시각과 청각으로, 웹툰이나 그림책은 시각으로 어필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출판 저작물은 오로지 '글'로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며, 이를 위해서는 좋은 번역이 필수적이다. 다행히 한류의 높은 인기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국어를 현지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인력은 아시아 지역을 제외하고는 매우 적은 편이다.

최근 들어 한류의 영향으로 실무에서 유럽이나 미주 지역, 기타 한국어 저작물의 수출이 적었던 곳으로부터 문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문의가 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번역'이다. 한국어 저작물에 관심을 보이는 해당 지역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한국어를 직접 리뷰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영문 자료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다행히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초록·샘플 번역지원,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지원 공모사업 등으로 영문 샘플이 마련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샘플만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기란 쉽지 않다. 대부분이 짧은 샘플 이외에 보다 상세한 영문 자료를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계약 성사율이 높은 경우는 전체 영문 원고가 있는 경우이다. 또한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서아시아 지역은 검토투를 위해 필수적으로 전체 영문 원고를 요청하고 있다.

## 에이전시를 비롯한 수출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일부 해외 출판사의 경우 한국 출판사에 직접 연락을 취하기도 하지만, 수출의 최전선에 있는 것은 언제나 저작권 중개 에이전시이다. 특히 영미 유럽권의 경우, 에이전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독립 출판사나 소규모 출판사가 아닌 이상 저자의 직접 투고는 받지 않으며, 현지 작가들은 모두 에이전트(literary agent)를 선임한 후 해당 에이전트를 통해서만이 출판사에 원고를 보낼 기회를 얻는다. 미국이나 유럽의 출판사들이 타 지역의 작가를 섭외할 때도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의 출판사나 작가와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에이전시를 경유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또한 대부분의 에이전시들은 자체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대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출판 저작물은 전 세계를 돌며 소개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따라서 K-book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미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자리 잡은 에이전시와 그 글로벌 파트너들을 십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한국어 저작물 수출의 발전과 성장을 지원하며

기회는 위기에서 온다. 코로나19라는 위기는 콘텐츠 업계의 전례 없는 활황을 불러일으켜 한류 콘텐츠의 전 세계적인 위상을 드높였다. 그 영향은 출판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혀 아직 타 콘텐츠에 비해 작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한류에서 이어지는 다양한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 확대, 그리고 한국어 공부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한국어 저작물 수출

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최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출판 콘텐츠 번역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실무의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유관기관들의 지원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를 발판 삼아, 앞으로 한국어 저작물이 보다 많은 곳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원한다.

---

#### **신서희(임프리마 코리아 에이전시 과장)**

2009년부터 출판 저작권 중개 에이전시 ㈜임프리마 코리아에서 근무했으며, 한국미술저작권관리협회(SACK)를 거쳐 2018년 다시 ㈜임프리마 코리아로 복귀했다. 도서 저작권 업무를 비롯해 미술, 사진, 영상, 공연과 관련된 저작권 실무를 두루 경험했으며, 현재는 한국 도서의 해외 수출과 영미 유럽권 도서의 국내 수입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

## [인터뷰] 서평 문화가 지니는 진정한 의미, 서울리뷰오브북스

2021. 5.



2000년 이후 서평 전문 잡지는 우리 일상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 <서울리뷰오브북스>라는 이름으로 서평 전문 잡지가 돌아왔다. <서울리뷰오브북스>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던 칭찬 일색의 서평 관습을 과감하게 타파하고 좋은 점은 부각하고 안 좋은 점은 비판하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서평을 지향한다. 이러한 혁신적인 서평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에는 13인의 편집위원이 함께한다. 그 선두에서 서평의 새로운 척도를 세워가고 있는 홍성욱 편집장을 만나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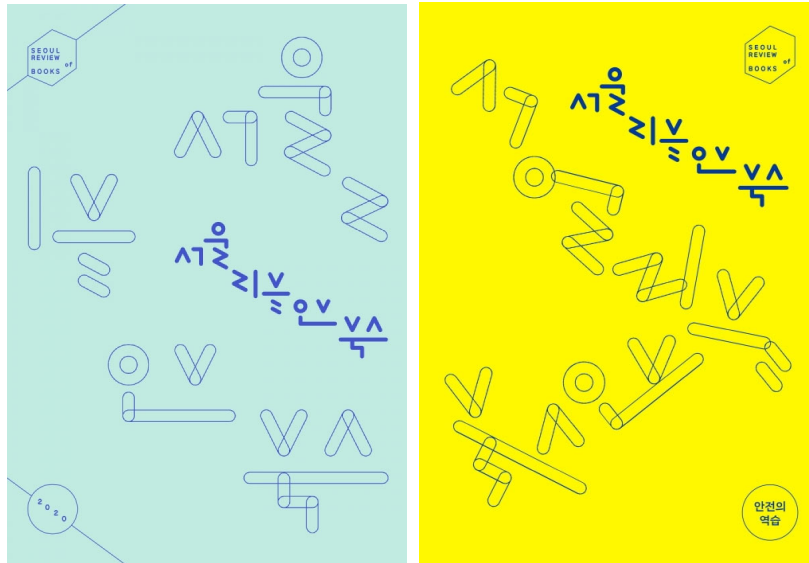
〈출판N〉에 홍성욱 편집장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웹진 독자에게 소개와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와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에 재직하고 있고, 과학기술학(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을 전공하는 사람입니다. 과학기술학은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분야로, 과학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와 함께 과학의 역사, 철학, 사회학 등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과와 문과, 과학과 인문학이라는 두 문화(two cultures)를 이어주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저는 과학기술과 대중문화의 접점을 탐구한 『크로스 사이언스』, 포스트휴머니즘의 사상적 맥락을 과학기술과 연관 지어 탐구한 『포스트휴먼 오디세이』, 실험실의 역사와 철학을 소개하는 『실험실의 진화』,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는 기술의 역사를 대중적으로 소개하는 『모던 테크』라는 책을 썼습니다. 또 KAIST의 전치형 교수와 함께 『미래는 오지 않는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마지막 책은 미래라는 것이 얼마나 예측하기 힘든 것임을 명시하면서, 기존의 미래학을 강하게 비판한 책입니다.

미국에는 서평 전문지 〈뉴욕리뷰오브북스〉가 있고, 영국에는 〈런던리뷰오브북스〉가 있다면, 한국에는 〈서울리뷰오브북스〉가 있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서울리뷰오브북스〉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서울리뷰오브북스〉는 2019년에 탄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서평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고, 여러 출판사에서 책을 내면서 출판사 편집자나 대표에게 서평지를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다들 좋은 생각이라고 했지만, 선뜻 서평지를 만들자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 뜻을 같이하는 연구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의 김영민 교수를 처음 만났고, 이후 철학을 하는 이석재 교수, 사회학자 김홍중 교수 등, 지금의 편집위원을 한 명씩 만났습니다. 내게 큰 영향을 준 좋은 책을 만나는 것도 인연이듯이, 이렇게 사람을 만난 것도 인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찌 보면, 많은 이들이 저와 비슷한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리뷰오브북스>를 만드는 데 뜻을 같이하는 열세 명의 편집위원이 모였고, 서울대학교에서 받은 지원금과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모은 기금으로 2020년 12월에 <0호>(창간준비호)를 냈습니다. <0호>의 특징은 “2020: 미리 와 버린 미래”로,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팬데믹에 대한 성찰을 담았습니다. 이후 2021년 3월에 “안전의 역습”이라는 특징을 담아 <창간호>를 냈습니다.



<서울리뷰오브북스> 0호

<서울리뷰오브북스> 1호

우리나라는 서평 전문지가 2000년대 들어 자취를 감췄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시점에서 서평 전문지를 제작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과거에 서평지가 어려움을 겪었던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20년 전만 해도 국내 저자가 쓴 좋은 책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출판시장은 해외 도서의 번역본이 주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문학만이 아니라,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경제경영, 자기계발, 논픽션 등의 영역에서 인기몰이를 하는 국내 작가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교수나 연구자도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책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의 소통은 논문으로 하고, 더 많은 독자를 대상으로는 책을 쓰는 식이지요. 우선 출판시장 자체가 서평지를 낼 수 있을 정도로 무르익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도 어려운 부분인데, 국내 출판시장이 커졌고, 또 몇몇 출판사들은 국내 기준으로 보면 대형출판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덩치가 커졌지만, 아직도 출판사 대부분이 소규모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 작은 출판사에서 어렵게 낸 책을 비평하거나 비판하는 문화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문에 서평을 연재하는 작가들, 신문 서평을 담당하는 기자들, 출판사 대표나 편집자들은 모두 출판을 사랑하고 출판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거품이 있는 책을 그렇다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학술서만이 아니라 상업용 대중서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서평이 ‘주례사 서평’이 되는 이유입니다.

서평지를 낸다고 하니가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국내에 서평을 할 만큼 좋은 책이 많은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출판계에 대한 기억이 20-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나오는 책은 그 양이나 질을 봐도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다고 하지만, 수많은 독서 클럽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으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는 책에 대한 얘기와 사진이 넘쳐납니다.

더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서평지가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서평지들은 결국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대중서의 경우에는 출판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학술서의 경우는 서로 아는 사이에 얼굴 붉히기 싫어서, 좋은 얘기만 서평에 쓰는 식이죠. <서울리뷰오브북스>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광고 등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재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작은 시도지만 서평을 쓰는 책을 출판사에서 제공받지 않습니다. 광고는 받지만 광고하는 책을 리뷰하지도 않고요. 또 서평자와 관계가 있는 저자의 책에 대해서 서평을 쓸 때는 이런 이해상충을 명확히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서평지 <서울리뷰오브북스>가 어떤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영화와 영화평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영화평도 좋아합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 영화평을 보기도 하고, 영화를 본 뒤에 영화평을 찾아 읽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영화평이 다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비판을 하면 영화사로부터 협박 전화를 받기도 했지요. 그리고 이런 칭찬 일색의 평을 보고 극장을 찾은 관객은 실망하기 십상이었습니다. 이런 문화가 영화 자체의 발전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영화 시장이 확장하는 데에도 나쁜 영향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론가들이 개봉 영화에 대해서 별점 하나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가는 지극히 주관적인 영역입니다만, 제대로 된 영화평이 관객의 안목을 높여 주었음은 물론이고,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영화의 수준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서평지의 역할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서평은 책을 좋아하는 독자의 풀(pool)을 넓힐 수 있고, 장기적으로 출판되는 책의 수준을 올리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의 서평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좋은 책을 발굴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거품이 있는 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메시지를 들이대는 서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서평은 책만큼이나 세상의 화제가 될 수 있는데, <서울리뷰오브북스>는 바로 이런 서평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 미디어 콘텐츠가 점점 더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리뷰오브북스>와 같은 서평 전문지의 등장은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디지털 미디어와 책이 꼭 경쟁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튜브가 사람들의 관심을 빼앗



고 있지만, 유튜브 내에도 ‘북튜브’처럼 책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북튜브를 통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고, 팟캐스트나 SNS를 통해서도 책을 접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버전의 e-book도 확산세이고요. 그렇지만 종이책은 그 나름의 물성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이책과 미디어 콘텐츠를 상충되는 것이 아닌, 상생적인 것으로 보기 시작하면 새로운 가능성이 가득한 독서의 장이 열릴 것이라고 봅니다.

〈서울리뷰오브박스〉는 우선 물성을 지닌 종이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 4월에 e-book을 출판했고, 네이버와 협력해서 독자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디지털 버전을 출판할 계획입니다. 2022년에는 유튜브 채널 등을 개설해서 서평자와 저자를 더 많은 독자와 연결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 13명의 편집위원이 함께 구성한 만큼 내용이 알차고 특별할 것 같습니다. 〈서울리뷰오브박스〉만이 갖는 특징과 장점은 무엇이 있나요?

〈서울리뷰오브박스〉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결정이 편집위원들 사이의 격식 없는 토론을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서평할 책 선정, 특집 주제 선정, 새로운 코너 신설, 외부 필자 섭외, 디자인, 마케팅, 새로운 사업 기획까지 모든 일을 함께 상의합니다. 편집위원 모두가 〈서울리뷰오브박스〉의 편집장이며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참여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서평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간과 노력을 쏟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편집위원 한 분 한 분이 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대중적인 글쓰기에도 능하신 분들입니다. 편집위원 열세 분과 이들의 협력이 〈서울리뷰오브박스〉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리뷰오브박스〉는 편집 방향만이 아니라 원고에 대해서도 서로 검토합니다. 편집위원들이 쓴 원고나 외부 필자가 쓴 원고가 들어오면 구글독스(google docs)에 올려서 모든 사람이 보고, 논평하고, 수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 과정을 거치는데, 지난 호에 실린 제 원고를 예로 들자면, 원고를 올리자 이에 대해서 수십 개의 논평이 달렸습니다. 논평에는 띄어쓰기나 맞춤법에 대한 간단한 수정 제안도 있지만, ‘글이 읽기 어렵다’,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 ‘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 좋겠다’와 같은 논평도 있습니다. 필자들은 이런 논평을 참고해서 글을 여러 번 고칩니다. 외부 필자에게 원고를 청탁할 때도 이렇게 글에 대한 수정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합니다. 책이 나오기 전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곳은 〈서울리뷰오브박스〉 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서평이 갖는 힘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와 함께 서평 전문지와 서평 문화가 필요한 이유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창간호에 실린 권두언에서 피터 싱거의 예를 들어 얘기했지만, 좋은 서평은 문힐 뻔한 책을 발굴해서 세간의 화제가 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말 좋은 책과 인구에 회자되지만 그렇지 못한 책을 구분하는 것은 건강한 독서 문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우선은 저희 같은 서평지가 이런 일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책을 좋아하는 모든 독자가 자신만의 심미안을 가진 서평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좋은 서평과 좋은 책, 좋은 저자, 책에 대해 애정을 가진 독자. 이렇게 네 개의 축은

피드백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속에 있다고 봅니다. 좋은 책은 좋은 서평을 낳을 수 있는 토양이 되고, 이는 더 많은 독자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비판적인 서평은 독자에게 책에 대한 심미안을 키워주며, 이는 더 좋은 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저자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례사 서평은 책에 대한 실망을 낳고, 결국 독자를 책과 출판시장에서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 끝으로 독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리뷰오브북스>를 만들면서 책도 더 많이 사게 되었고, 잡지도 여럿 구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구매하고 잡지를 정기 구독하는 게 저자나 출판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몸소 느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하나 만드는 데에도 꽤 많은 노력이 듭니다. 그렇지만 책의 경우에, 저자가 책 한 권을 내기까지는 1년에서 수년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서평지는 이런 책들을 꼼꼼하게 읽고 쓴 서평을 담은 책이지요. 너무 상투적인 말로 들리겠지만, 독자 여러분들의 애정과 관심만이 책과 서평지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책을 내보니까,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

## 정수초 한옥도서관과 한옥교실을 가다

---

정선영(정수초등학교 교무부장)

2021. 5.

### 학교는 변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학교라는 공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 아이들이 하루 일과 중 가장 많이 머무르는 공간 세 곳을 떠올려 보자. 사람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중소도시 규모 이상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이라면 그 세 곳은 집, 학교, 학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두 곳으로 더 줄인다고 해도 집과 학교 정도로 압축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학교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가 즐겨 듣고 부르는 “네모의 꿈”이라는 노래는 안타까운 우리나라 학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고 있다.

네모난 학교에 들어서면  
또 네모난 교실 네모난 칠판과 책상들  
네모난 오디오 네모난 컴퓨터 TV  
네모난 달력에 그려진 똑같은 하루를  
의식도 못 한 채로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걸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 네모난 것들뿐인데  
우린 언제나 듣지 잘난 어른의 멋진 이 말  
'세상은 둥글게 살아야 해'

네모난 학교 건물을 아무도 걱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6.25전쟁 이후 산업화가 막 시작되던 1962년 즈음, 학교는 학교시설 표준설계도에 따라 넘쳐나는 베이비붐 세대의 아이들을 가장 빠르고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지어졌다. 이후 1990년대 현대화시범학교 계획으로 열린교실, 교과교실, 정보화교실, 복합화교실 사업 등이 추진되며 획일적인 학교의 모습은 조금씩 바뀌어 갔다. 하지만 표준건축비의 한계에 부딪혀 아직까지도 학교의 모습은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전국 어디를 가나 학교의 모습은 네모의 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교육의 선두 그룹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학생들에게 무한한 창의력을 키우고, 올바른 인성을 갖추라고 강요하고 있다.

창의력과 인성이 공간만의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이러한 공간의 경직성에서 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기존의 학교 혹은 새로 지어지는 학교 건축과 공간의 구조를 새로운 개념의 구조로 바꾸는 다양한 학교 공간 재구조화(또는 혁신)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 예로 서울시교육청의 ‘꿈담교실’, ‘서울형 메이커 스페이스’, 부산시교육청의 ‘별별공간사업’, 광주시교육청의 ‘아지트(아·썬·트) 사업’, 경기도교육청의 ‘미래형 마을학교 만들기 사업’ 등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대규모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견줄 만한, 정말 색다른 학습 공간 혁신이 서울 정수초등학교에서 지난 2020년에 벌어졌다. 물론 서울시교육청의 ‘꿈담교실(5개 교실)’, ‘서울형 메이커 스페이스(2개 교실 규모)’, ‘고운 색 입히기(외벽 개선 공사)’ 사업을 모두 동시에 진행하면서… 그 혁신은 바로 학교라는 공교육 기관에 한옥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 정수초 한옥도서관과 한옥교실,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 많은 학교 중에서 왜 하필이면 서울정수초등학교에 한옥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었을까? 아래 내용은 사단법인 한옥문화원의 계간지 <한옥문화> 2020년 겨울호 및 일부 언론에 기고한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서울정수초등학교는 성북구 정릉동,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공립학교로서 1986년 4월 6일 개교한 이래 정릉을 대표하는 초등학교이다. 학교 바로 옆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적인 정릉이 있어 한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통학에 어려움이 많아 학생이 주변 학교로 빠져나가면서 줄어드는 만큼 인근 주민들의 관심도 줄어들고 있었다. 세계문화유산인 정릉과 맞닿은 좋은 지리적 요건을 살려 한옥교실 건축을 지원받아 주민 및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전통문화와 전통미에 대한 감각을 자연스럽게 갖도록 하고자 2018년 4월 18일, 신한옥 교육시설 구축 사업희망서를 제출했으며, 세 개의 후보 학교 중 현장답사를 거쳐 최종 후보지로 우리 정수초등학교가 선정되었다.

이후 2019년 2월, 서울시교육청과 협동연구기관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전봉희 교수)이 신청에 동의하고 업무협약을 맺으며 시작된 것이다. 사업 정식 명칭은 “신한옥형 교육시설 실증구축”이었으며, 공동연구기관인 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장필구 교수)에서 운영과 진행을 맡았고, 대연건축부설연구소(대표 김철민)에서는 설계 및 감리를, 현영건설부설연구소(대표 김호준)에서는 시공을 담당하였다.

2019년 3월 말부터 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학교, 교육청, 관련 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실증구축에 대한 회의를 시작하였고, 9월까지 세 차례 더 이어갔다. 이와 별개로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및 간담회(5~6월), 사용자참여협의체(이하 한옥TF팀) 구성 및 협의(7~8월), 다른 한옥 및 최신 도서관 사례 탐방(8월), 디자인 워크숍(10월)을 거쳐 11월 “신한옥형 교육시설 구축 실시협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이듬해 1월 한옥TF팀의 결정인 조경속 배치안대로 설계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한옥도서관 학부모 설명회



한옥도서관 상량식



기왓장 손글씨 쓰기 이벤트



한옥도서관 현판식

2020년 2월 14일, 터파기를 시작으로 신한옥형 교육시설인 정수초 한옥교실의 공사가 역사적인 첫 삽을 뜨면서, 같은 달 24일, 착공식 겸 '안전지원제'를 실시함으로써 본격적인 공사의 시작을 알렸다. 6월에는 정수의 모든 어린이들이 참가하는 기왓장 손글씨 이벤트도 실시하였고, 7월에는 상량식, 10월에는 한옥도서관과 한옥교실 이름공모, 11월에는 현판식, 12월 준공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함께 참가함으로써 모두가 만들어 가는 하나의 큰 축제가 된 셈이다.

### 정수초 한옥도서관과 한옥교실,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

서울정수초등학교 한옥 건축물은 크게 한옥도서관과 한옥교실, 그리고 두 한옥을 잇는 회랑(回廊)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옥도서관인 한솔각(韓率閣)은 '크다', '하나뿐이다'라는 의미의 '한(韓)'과 소나무를 뜻하는 '솔'과 뜻, 음이 같은 솔(率)의 의미를 포함하여 '독서를 통해 힘을 길러 한국(韓國)을 이끄는(率) 사람이 돼라'는 의미를 담았다. 한옥교실인 나리재(邏理齋)는 학교의 교화(校花)인 개나리의 '나리'라는 소리를 땀으며, 한자로는 '이치(理)를 붙잡고 순행(邏)하라는 의미'를 담았다. 회랑은 한솔각과 나리재를 이어주는 동시에 한옥과 큰 마당인 운동장을 구분하는 열린 공간이다.

지금의 도서관과 창의적 체험 교실이라는 교육적 공간의 위치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고 결정하기까지 많은 토론과 논의가 있었다. 처음 계획은 운동장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학교 건물 앞 스탠드에 이를 배치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학교 구성원들은 기존 학교 건물과는 독립되면서도 체육관(강당)과 맞붙어 이어지는 건물을 희망했고, 그들의 강력한 의사를 반영하여 현재의 조경 속 배치로 설계를 변경하는 우여곡절도 있었다. 이러한 학교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이 있었기에 북한산과 북악산 자락이 배경이 되는 전통적 한옥 경관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정수초 학교 및 한옥교실 전경

정수초 한옥도서관 및 한옥교실(정면)



한옥도서관(한솔각: 韓率閣)

한옥교실(나리재: 邇理齋)

## 정수초 한옥도서관,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공교육 기관으로 처음 들어온 한옥, 이 아름답고 멋진 선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았다. 돌아해보면 2018~2019년은 신청 및 계획의 기간이라 볼 수 있고, 2020년은 계획한 것을 실제로 구축한 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2021년 올해는 이를 교육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정수교육의 한 축이 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대유행 사태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정답은 아닐지라도 묘책을 찾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도서관’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기본적인 용도가 ‘독서’와 ‘도서 보관 및 유지’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학교 도서관이라면 책을 꽂아둔 책꽂이가 있고 그 옆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테

이블과 의자가 있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정수초 한옥도서관인 한솔각은 처음 계획했던 스탠드 구조를 살리는 것을 학교 구성원들이 강하게 원했기 때문에, 조경 속 배치안으로 설계를 바꾸면서도 그 구조를 한솔각 내부에 그대로 유지했다. 이는 한옥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공간 구성이지만, 학생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주었다. 또한 계단 사이는 책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스탠드형 책꽂이 옆의 계단은 1층 평평한 공간과 2층 서가(書架)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나아가 스탠드형 책꽂이에는 큰 계단처럼 높낮이가 생겨 의자처럼 앉아 청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1층 아래 창가 쪽 평평한 공간에는 빔프로젝터와 스크린, 음향 시설을 설치해 수업 및 강의, 작은 공연이나 행사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옥도서관에서 자유롭게 독서하는 학생들



한옥도서관에서 도서관 이용 방법 교육을 받고 도서를 대출, 반납하는 학생들



1층은 소규모 발표회나 행사의 장소로, 2층은 학부모 독서 동아리(카페)로 활용하는 모습

## 정수초 한옥교실,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한옥도서관인 한솔각이 본채라면 한옥교실인 나리재는 별채라고 볼 수 있다. 이 별채를 한옥교실로 부르기로 하자. 별채는 팔작지붕인 본채와 달리 어찌 보면 맞배지붕을 가진 단출한 형태의 방 한 칸짜리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규모나 용도 면에서 본채에 비할 바가 못 된다. 하지만 나리재는 전통적으로 ‘채’라는 개념의 도서관과는 완전히 독립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준다.

이곳은 본채에서 읽은 책들을 들고 와서 함께 이야기하는 토론의 장으로 쓰일 수 있다. 정상적인 등교 수업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 매주 한 학급당 1회씩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학부모 독서 동아리처럼 학생 독서 동아리를 운영할 수도 있는데, 현재 정수초에서는 매주 수요일 방학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속닥속닥 북클럽’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본채와 별채 사이 작은 뜰은 전통놀이 공간으로 전혀 손색이 없다. 체육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작은 뜰에서는 야외전통놀이를, 나리재 안과 마루에서는 실내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다.

한옥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공간의 열림이라고 할 수 있다. 별채인 나리재 안에 앉아서 사방의 모든 창을 열고 운동장이나 뒤뜰을 바라보면 안과 밖의 공간이 막히지 않고 마루와 창을 통해 이어져 있음을 체험할 수 있다. 이는 현대식 건축물에서 느끼기 힘든 장점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한옥교실을 예절교실, 서예교실, 국악교실 등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먼 훗날 이곳에서 멋진 것을 쓴 선비가 책을 읽거나 수묵화를 그리고, 한복 입은 명창은 그 옆에서 국악에 맞춰 창을 부르고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점심시간, 식사를 마치고 산책 겸 학교를 둘러보다가 나리재 뒷마루에 걸터앉아 운동장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서너 명의 저학년 아이들이 달려와서 자연스럽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또한 공간의 열림이라는 한옥이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이다.



한옥도서관에서 자유롭게 독서하는 학생들





한옥교실에서 전통놀이를 하는 학생들

“선생님? 우리 학교 한옥은 꼭 궁궐 같아요. 다른 학교 아이들이 너무 부러워서 저도 모르게 우쭐해져요.”

독서토론 활동을 막 마치고 나온 또 다른 고학년 학생에게 물어보았다.

“한옥에서 공부하니까 좋아?”

“그럼요. 집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아늑한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음... 이 소나무 향이 정신을 맑게해주는 것 같아요.”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 학교라는 공간으로 들어온 한옥이 서울정수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분명 큰 선물이라고 확신한다. 한옥이 주는 심미적 감각을 이들은 평생 간직하고 살아갈 것이다. 우리나라 전통 건물인 한옥이 모든 학교에 들어서기에는 예산이나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발판이 되어 언젠가 학교 전체를 한옥으로 짓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은가.

**정수초등학교 한옥교실 및 한옥도서관 홍보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TvgfzByt3oc>

**정선영(정수초등학교 교무부장)**

서울정수초등학교 교사(교무부장)로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체육학 석사, 美 West Chester University와 연세대학교에서 교육측정평가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16년~2019년 교육부 파견 교사로 말레이시아한국국제학교 개교 요원으로 활동하고 그 공로로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출판  
N